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 서울의 봄

감독 \_ 김성수

제작 \_ 하이브 미디어코프

본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하이브미디어코프에 있으며 전달받은 사람이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복제나 발췌를 하여 본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무단 도용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기관 및 인물 명칭 등은 참고일 뿐 영화 제작 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 1. 삼각지 육군본부 앞 / 밤

Fade In, 지프 뒷좌석에 앉은 사내. 별 두 개가 박힌 군모를 쓴 **장태완** 소장이다.

차창 밖을 주시하다 답답한 듯 내린다. 빵, 빠아앙~~ 육군본부 앞은 완전히 뒤엉켜있다.

비상소집 된 군용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꽉 막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헌병에게 경광봉을 달라고 한다.

장태완            뒤루, 뒤루. 빠꾸! (손짓하며) 더, 더어! 스톱! 거기 오라이! 아우 들어오라니까!  
(경광봉 흔들며) 들어와. 거긴 스톱! (보닛 툽툽 치며) 됐어. 인제 와!  
오라이, 그르치 오라이. 야 헌병! 호루라기 줘봐.

호루라기를 불며 동분서주하는 장태완. 서서히 차량이 풀린다.

참모 박동원 대령이 달려오는 걸 보고는, 호루라기와 경광봉을 돌려준다.

장태완            뭘땀에 비상 발령한 거야?  
박동원            (안내하며) B2병커로 바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장태완            !!!.. 모야? 전투 상황이라도 발생했어?  
박동원            전방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 2. 육군본부 B2병커 (지하) / 밤

장태완의 시점으로 들어가는 복도. 육해공 고위 장성들이 하나같이 상기된 표정으로 우왕좌왕한다.

노재현 국방장관과 정승화 참모총장, 뒤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김진기 헌병감이 가운데 회의실로 들어간다.

장태완을 알아본 김진기가 살짝 고개만 숙여 인사한다.

장태완            (입모양) ‘무슨 일이야?’

그때 정면에서 몰려오는 최규하 국무총리와 내각 관료들.

.....회의는 시작됐지만 무겁게 착 가라앉은 분위기. 최규하 총리가 일어나 좌중을 둘러본다.

장관들과 군부 최고 실세들만 착석했고, 장태완은 뒤쪽에 뻥뻥이 둘러선 무리 속에서 지켜본다.

최규하            예.. 조금 전에.. 박대통령 각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장태완            !!!!!

일부는 알고 있고, 장태완을 비롯한 대다수는 충격에 휩싸인다. 탄식과 웅성거림!

최규하            잠시 묵념을 올리고.. 비상 국무회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태완            (눈을 감지 못하는, 멍한 표정)

- 회의가 시작되었고, 최규하 총리가 손짓을 하자 정승화 총장이 단상으로 나온다.

정승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방금 임명하신 바대로,  
계엄사령관직을 맡게 된 정승화입니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일동 (쳐다볼 뿐 박수도 없다)  
정승화 계엄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저기 계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말을 예정입니다.

테이블 끝에서 일어난 전두환이 절도 있게 경례를 올린다. 입을 꼭 다문 채 다시 착석하는 전두환.  
이 모든 게 장태완의 시점이다.  
자막, '1979. 10. 27. 04 : 00. 비상계엄 선포.'

### 3. 서빙고 보안사 취조실 / 밤

초췌한 물골로 앉아있는 김재규. 그 앞에 서류철이 툭 떨어지고 누군가 앉는,  
전두환이다. 진술서를 펼쳐 읽는 전두환을 물끄러미 보는 김재규.  
진술서를 읽다 멈추고 김재규를 쏘아본다. 그 상태로 흐르는 침묵...  
보안사 수사관들도 숨죽이고 지켜보는.

전두환 범행이유가.. (진술서를 거꾸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이게 김부장이 한 말 맞습니까?  
김재규 .....(조용히 끄덕인다)  
전두환 하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 미치겠다 정말. 이보세요 김재규씨!  
머 어디 가서 점 봤어요?  
김재규 내가 말이오...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두면 큰일 나니까..  
전두환 (자르며) 대통령 자리가 탐나서, 미쳐 날뛰다고, 그렇게 생각대로 될 줄 알았어!!

탕!! 책상을 내려친 전두환, 소리가 어찌나 큰지 모두 얼어붙는다.

전두환 바뀌긴 뭘 바꿔? 나가봐, 바뀐 거 하나도 없어.  
김재규 (뻘뻘 보는)  
전두환 꿈 깨. (일어서는) 세상은 그대로야.

### 4. 박정희 대통령 영결식 몽타주 (Opening title)

자막, '1979. 11. 03. 박정희 국장.'

- 중앙청 앞 영결식장. 영정 앞에 절하는 유족, 국무위원, 외교사절..  
이어지는 기록영상 몽타주, 그 위로 오프닝 타이틀이 시작된다.

- 도열한 군 장성들 일제히 경례! 그 속의 정승화, 장태완...  
그리고 장차 12.12를 주도할 주역들이 보이면서 전두환의 얼굴로 다가가면,  
얼굴이 시뻘게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전두환, 아랫입술이 바르르 떨린다.

- 군악대의 연주. 운구 버스에 승차하는 장성들.. 장태완도 줄 서서 오르려는데,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정승화) 장태완 장군!  
장태완 (돌아보면)  
정승화 (슬쩍 다가와) 한 번 공관으로 오실 수 있어요?  
장태완 예? 예... 무슨...

미처 대답도 듣기 전에 정승화 총장은 멀어진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장태완, 운구 버스에 오르고.

- 세종로를 꼭 매운 엄청난 추모 인파. 이순신 장군 동상을 지나치는 운구 차량.  
오열하고 통곡하는 국민들의 자료화면.. 타이틀이 뜬다.

### <서울의 봄>

#### 5. 국방부 강당과 여러 장소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발표 몽타주) / 낮

- 강당 부속실, 전두환이 발표문을 들고 왔다갔다 읽는다. 허화평 대령이 이제 나갈 시간이라는 데도, 허삼수가 받쳐든 벽걸이 거울 앞에서 거울 속 자기 얼굴을 그윽하게 보면서, 무대 오르기 전 배우처럼

전두환 금번, 대통령 각하의 충격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힐끔) 너무 무겁나?  
허삼수 아님다, 목소리가 진짜 중후하십니다.  
허화평 제가 보기엔 조금만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찌릿) 불편해 보여? (움짤하는 허화평) 너무 편하게 말하면 이상하지~  
(거울을 본다, 자기 눈동자를 응시) 내 생각에 말야.. 각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두환아! 니가 잘 해야 돼.. 이러신 거 같애. (옆을 보며) 맞지?

- 국방부 강당

마이크가 설치된 발표석이 보이고 맞은편에 기자들이 운집해 있다.  
분주하게 TV 카메라와 조명을 확인하는 방송국 사람들. 이 때 전두환 일행이 들어선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발표석으로 가는 전두환.

- 1979년 서울의 모습

전파사 앞에서 행인들이 쇼윈도에 전시된 TV화면을 보고 있다.  
'...보안사령관께서 박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한 중간발표를..' 대변인의 소개 멘트가 있고,  
전두환의 모습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이다.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를 오가는 차량행렬 위로 전두환의 목소리.

(전두환) 금번 대통령각하의 충격적인 사고로 전 국민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 플래시가 터지는데, 특유의 말투로 딱딱하게 발표문을 읽는 전두환.

전두환 김재규는 자신의 인책 해임을 우려한 나머지,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허황된 망상을...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 서울역 외경 인서트.

역사에 설치된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는 호기심 어린 표정들. TV를 주시하는 눈빛들.

(전두환)            각하, 이 따위 버려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라며,  
                      김재규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 서빙고 취조실.

의자에 묶인 채 혁혁대는 김재규. 물고문으로 흠뻑 젖어있다. 테이블 위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전두환의 음성. 합수부 이학봉과 수사관 한 명이 귀를 기울인다.

(전두환)            차 실장에게 일발을 발사하고... 바로 일어서면서 대통령 각하에게도 일발을 발사했다.

- 고즈넉한 정원. 환한 햇살을 받으며 비탈길을 올라서는 장태완.

참모총장 공관 앞을 지키는 해병대 경비병이 척, 경례를 올린다.

(전두환)            수발의 총성이 들리자 의아스럽게 생각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 6. 한남동 총장공관 거실 & 정원 / 낮

집무실 책상에서 소형 TV를 보는 정승화 총장. 전두환 목소리 계속 이어지고,  
거실에서 장태완이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온다.

(전두환)            어디서 총소리가 난 것 아니요? 하니, 김정섭 중정 2차장보가 밖으로 나와...

정승화, 고개를 돌려 장태완을 힐끔 본다.

장태완            혹시 방해가 됐으면 나중에...

정승화            무슨, 무슨. 들어오세요.

(전두환)            수사를 지휘한 본인은 오직 사명감에 입각하여 소신을 갖고서...

들어오라고 해놓고 TV만 뚫어지게 보는 정승화, 멍뚱뚱 서서 보는 장태완.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가 끝난다.

- 장태완이 걸어온 공관 앞 정원을 거닐며 대화하는 두 사람.

정승화            합동수사본부장을 보안사령관이 맡는 게 타당한 거요?

장태완            ?...저한테 왜.. 그걸 물어보십니까?

정승화            대통령 각하와 경호실장은 돌아가셨고, 중앙정보부장은 구속됐지~  
                      보안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니까, 전두환 소장이 아주 날개를 달았습니다.

장태완            .....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정승화 (대뜸) 하나회랑 장 장군이 상극이란 얘기가 있던데.  
장태완 (보면)  
정승화 어떻게 생각하시요? 그 하나회.  
장태완 (단호히) 군내에 사조직이 활개치게 놔뒀선 안 됩니다.  
정승화 원래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성격 맞소?  
장태완 총장님. 오늘 부르신 이유가...  
정승화 장 장군은 6.25 나자마자 자원입대해서 전투를 수도 없이 치렀다고.. 그쵸?  
장태완 그땐 머,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승화 경력도 대부분 전방 야전 사령부 예하 부대 지휘관에, 작전참모 경험도 있고..  
근데 후방 근무는 비교적 없습니다?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정승화 그래서 말인데,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적임잔 거 같아.  
장태완 (멈칫)....제가요?  
정승화 (끄덕) 원래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장태완 총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난데없이 제가 왜 적임자입니까?  
정승화 다들 탐내는 자리니까, 장장군처럼 욕심 없는 분한테 맡겨보고 싶어요.  
책임감은 엄청 강하고! (씨익)  
장태완 저 욕심 엄청 많습니다.  
정승화 성격이 급해서, 내 얘기 좀 다 듣고 말하면 안 되겠소?  
장태완 죄송함다.  
정승화 그리고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는 진짜 군인. 장태완 소장.  
장태완 .....  
정승화 사조직을 당장 없앨 순 없지만, 요직에서 하나둘 밀어낼 생각입니다.  
장태완 정치군인 견제하려고 절 쓰시는 거면, 그거 역시 정치적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리 큰 자리를 제안해 주셔서 당장 옷을 벗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감사한데,  
솔직히.. 저한테 어울리는 자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화 장 장군. 나 좀 도와줘.  
장태완 .....  
정승화 육본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디다. 장태완이 너무 고지식하다고.  
대신에 딴 생각을 안 한다고.  
장태완 고민을 며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마십쇼.

### 7. 봉천동 장태완의 자택 / 밤

잠을 못자고 이리저리 뒤척이는 장태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는다.

처 (겉에서) 뭐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요?  
장태완 별 소리를 다한다. 얼른 자요.

다시 누워 잠을 청해 보는 장태완. 생각이 많아 보인다.

8. 종로 보안사 사령관실 / 아침

양복차림의 각부 차관들이 어수선하게 선 채로 기다린다.

전두환이 성큼성큼 자기 방으로 들어서자 마치 상관을 대하듯 바짝 긴장하는 차관들.

전두환           우리 차관님들 이만저만 바쁘신 게 아닌데 이리 오시게 해서..

(응접테이블 상석에 앉으며) 자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동           (비좁은 자리에 의자들이 다닥다닥 앉는 동안)

전두환           국장들도 참석하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보안사가 좁고 누추하고, 하하.

(허삼수에게) 진행해야지?

허삼수           네, 외무부 차관님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           아냐, 내무부부터.

허삼수           아 예.. 그럼 양차관님이 먼저.

나이 지긋한 내무부 차관이 일어선다. 두툼한 서류를 뒤적이면서 보고 시작하는,

내무차관           부정축재자 범위를 정해보라고 하신 안건은...

9. 육본(육군본부) 참모총장실 / 저녁

소파에 앉아 대화중인 정승화 참모총장과 윤성민 참모차장.

정승화           합수부에서 국무회의를 주관한다니 그게 뭘 소립니까?

윤성민           처음엔 시해사건 수사에 협조해 달라해서 차관들이 참석한 건데,

점점 정보 보고 쪽으로 흘러서... (목소리 낮춰) 결국 국무회의처럼 되었답니다.

정승화           .....합수부에서 계엄사로 넘어오는 정보도 지들 멋대로 선별하고 있습니까?

윤성민           (눈치, 끄덕인다)

10. 육본 본관 건물 앞 / 낮

본관 앞에 차량이 멈춰서면,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여느 스타 못지않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전두환이 내린다. 허삼수와 허화평의 호위를 받으며 기자들을 뚫고 가는, 걸음이 꽤나 당당하다.

본관 2층 어느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11. 육본 참모총장실 / 낮

창가에서 정승화 총장과 장태완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

정승화           대한민국을 지 혼자 책임진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장태완           영관급 장교 대다수가 정치상황 돌아가는 거에 흥분해 있습니다.

정승화           저 친구가 과욕을 부리니까! 누가 옆에서 좀 따끔하게 말려줘야 하지 않소?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장태완 (소파로 가는) 총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승화 나 혼자 되질 않으니까 걱정이지. 그놈의 하나회가 문제야...  
장태완 .....  
정승화 수경사 안 맡으실 겁니까?  
장태완 제가 수도경비사령관으로선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치적 역할을 바라신다면, 그 부분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승화 !..... (다가와 앞에 서는)  
정치를 시킬 거면 장태완 당신한테 맡기질 않습니다.  
장태완 (잠시 올려다보는)  
정승화 (손 내밀며, 미소)  
장태완 그러시면... (담담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정중히 악수를 나눈다.

### 12. 국방부 강당 / 낮

<전군지휘관 회의>. 연단에 선 정승화 총장이 군 지휘관들 앞에서 연설 중이다.

정승화 정권의 민정이양은 국민의 여론이며 시대의 요구입니다.  
모두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복귀의 도발을 막는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거 우리 군은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과오를 범했으며,  
이는 우리 군의 씻을 수 없는 수치로...

전두환 주변에서 웅성웅성, 연설 내용에 불만 섞인 잡담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쪽을 보는 장태완. 뒤를 돌아보는 전두환이 하나회 장군과 장교들에게 눈살을 찌푸린다.

전두환 거어 조용들 좀 하지.

주의를 줘서 정숙 시키는 전두환. 앞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장태완의 시선과 만난다.  
전두환이 고개를 까닥 숙여 인사한다. 미소로 답하는 장태완.

### 13. 국방부 복도 / 낮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정승화 총장을 전두환이 따라온다.

전두환 장태완 장군을 수경사로 불러들이시는 거 확정사항입니까?  
정승화 (걸어가며 힐끔 보는)  
전두환 장 장군도 나쁘진 않은데, 수경사는 대한민국 수도를 책임지는 군 최고 요직 아닙니까.  
서울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 알짜배기는 다 모여 있는~

멈춰서는 정승화. 전두환을 뺨히 쳐다보며,

정승화 전 장군이 하고 싶은 말이 뭐니까?  
전두환 수경사령관은 야전 지휘관 출신 보다는.. 좀 뭐랄까.. 장장군은 육사도 아니고  
갑종출신에 너무 에프엠(fm)스타일이라.. 암튼 더 세련된 사람이 어울리지 않을까..  
정승화 세련된 누구?  
전두환 (찬스!) 11기 노태우 장군은 어떻습니까?  
정승화 인사권은 총장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전두환 예?  
정승화 전 장군이 내 결정을 뒤집을 권한까지 갖고 계시오?  
전두환 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제 말씀의 취지는..  
정승화 그 취지는 안들은 걸로 합시다.

훌쩍 가버리는 정승화.. 한 방 제대로 먹은 전두환. 얼굴이 벌개져서 노려본다.

#### 14. 국방부 주차장 / 낮

별 표시 달린 차량이 위세 좋게 도열 한 주차장. 분주히 각자 차량에 올라타고 떠나는데..  
전두환이 내려오자 하나회 장군들 우르르 몰려든다. 담배를 건네고 불을 붙여주고 뭔가 숙덕이는 모습이  
하나회 세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느낌이다.

백운택 정총장이 장태완을 구워삶아서 자기 밑에 박을 줄 몰랐는데~  
노태우 특전단 정병주, 수경사 장태완이, 양뺑으로 벽을 친 거지.  
전두환 장태완인 그 성질에 누구한테 줄 서고 그러질 못할...

뭔가를 본 노태우가 전두환에게 슬쩍 턱짓을 한다.  
장태완이 계단을 내려와 지프에 타려는.. 전두환이 쏘르르 달려간다.

전두환 (호들갑) 아이고~ 선배니임!  
(바짝 숙여 악수 청하며) 축하드립니다.  
장태완 역시 보안사는 모르는 게 없네. (악수하며) 고마워.  
전두환 선배님. 아 정말이지 축하주 대접하는 영광된 기회 한 번 주십시오.  
장태완 (말 돌리는) 보안사 챙기라, 합수부 신경쓰라, 정신없지?  
전두환 뭐, 나라 일 하는 거야 봉사하는 맘 없으면 다 도루묵 아닙니까?  
요새 신경 쓰느라 머리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하하!  
장태완 김부장은...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  
전두환 공판 때 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 해야죠. 잘 하고 있습니다.  
장태완 요새 중정 간부들은 전부 서빙고로 끌려간단 소리가 있던데,  
전두환 (표정 변하는)  
장태완 김부장이야 응당 대가를 치러야지.  
근데 애비가 사고를 쳤어도 딸린 식구들까지 전부 공범으로 몰아가는 건,  
그래도 나랏일 하던 친구들 인데, 좀 안 돼 보여서 말야.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전두환            선배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건 마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태완            (미소) 물론 자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슬쩍 하나회 쪽을 보는 장태완. 전부 이쪽을 주시하고 있는 일당들을 본다.

장태완            요새도 애들처럼 몰려다니나?  
전두환            (기분 상하는) 지가... 마 선배님하고 이참에 친해볼까 하는 맘도 솔직히 있습니다.  
                      뭐 어려운 시국에 같은 편 하든 서로 힘이 되지 않을 까 싶고,  
장태완            (웃으며) 이 사람,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이야.  
전두환            아, 그런 가요? (껄껄 웃는)  
장태완            또 보세.

답습하는 장태완, 바로 출발하고.. 전두환, 기분이 상해서 멀어지는 지프를 노려본다.  
차안의 장태완도 사이드 미러에서 멀어지는 전두환을 주시하는..

### 15. 필동 수경사(수도경비사령부) 연병장 / 낮

도열한 병사들과 장갑차 행렬. 장태완 수도경비 사령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단상 위, 정복을 갖춘 장태완이 정승화 총장으로부터 부대 깃발을 전달받는다. 내빈으로 참석한 윤성민 참모차장,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등이 보이고. 아내와 딸, 아들이 장태완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포옹한다.  
장태완이 꽃목걸이를 벗어 아내에게 걸어 주려 하자 손사래를 치며 마다하는 처의 웃음이 정겹다.  
찰각- 기념사진을 찍는 가족들, 그리고 장태완과 정승화 투 샷.

### 16. 필동 수경사 사령관실 - 차량 내부 교차 / 낮

집무실에서 신임 수경사령관이 예하 부대 지휘관과 인사하는 행사다.  
도열한 지휘관들과 차례로 악수하는 장태완.  
먼저 수경사 30경비단장 장세동과 손을 꼭 잡는다. 그 위로 목소리.

(장태완)            장세동이랑... 또 누가 하나회 멤버지?

- 하루 전 차량 내부. 점퍼차림의 장태완이 정차한 차 안에서 참모 박동원 대령과 대화 중,  
수경사 지휘관들의 인사 기록부를 보고 있다.

박동원            육사 13기 조흥 헌병단장...

-집무실, 조흥과 악수하는 장태완의 모습.

(박동원)            17기 김진영 33경비단장. 전부 하나합니다.

- ‘충성’ 경례를 올리는 김진영. 악수하는 장태완, 팔을 정겹게 툭툭 쳐준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장태완 (미소) 잘 부탁드립니다.  
(박동원) 하나회는 기수마다 열 명씩 선발되는데...  
자기들끼리도 누가 하나회지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 차량 내부. 장세동 등 3인의 인사기록을 하나하나 넘겨보는 장태완.

(박동원) 대략 100 여명 이상이 군의 핵심 요직을 거의 장악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장태완 확실한 건, 대가리는 전두환이라 이거지.

### 17. 종로 보안사 사령관실 / 밤

보안사에서 입수한 12/6일 진급심사위원회와 장군후보자 명단을 전두환이 내려다본다.  
옆에 선 허화평이 하나회 회원에 빨강색으로 표시한 걸 가리키며

허화평 형님, 이번 장성진급에 우리 회원들 다 올라가는 겁니까?  
전두환 (끄덕) 위원장하고 얘길 끝냈어.. 거의 다 돼야지.

허화평이 이번엔 <보도검열단 지침>을 건넨다.

전두환 언론팀 통제관이 나한테만 직보하도록 했지?  
허화평 당연하죠. 계엄사엔 그냥 뭉뚱그려서 보고할 겁니다.  
전두환 아예 보도검열단을 여기 보안사로 출근시키는 건 어때?  
허화평 좋은데요~ 그럼 209호에다 방을 만들겠... (노크소리?)

허화평이 나가본다. 문이 열리고 허삼수 대령이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전두환에게 무어라 귀엣말 한다.

전두환 (가방을 보며) 청와대 금고에서?  
허삼수 (끄덕)  
전두환 얼마나 돼?

### 18. 한남동 총장공관 거실 / 저녁

전두환이 소파 테이블에 의기양양 돈 봉투를 올려놓는다.

전두환 청와대 비서실에서 찾았습니다. 총 9억이 있었는데, 1억은 합수부 수사비로 빼두었고,  
6억은 큰 영애께 드리고, 나머지 2억입니다.  
정승화 .....(돈 봉투를 무표정한 눈길로 보는)

전두환           비명에 가신 각하를 위해 도의적으로다가 이리 하는 게..  
정승화           수사과정에서 나온 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나?  
전두환           아... 그게 관례적이긴 하나 아무래도 이래저래 말이 나오는 것보다야,  
정승화           이러니까 합수부 얘기가 자꾸 나오지! 수사 핑계로 취득한 정보를 독점하고,  
                  전장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전두환           (욕한 거 삼키며)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정승화           누가가 아니고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두환           .....아니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정승화           (말 자르며) 계엄사령관은 합수부 보고를 받아야지 통보를 받는 게 아닙니다!  
                  다음부터 이딴 식으로 일 저지르고 와서 통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전두환           .....후우 (숨을 길게 내쉴다)  
정승화           전장군. 대답 안 합니까?  
전두환           (마지못해) 알겠습니다.  
정승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는 표정인데.. 맞습니까?  
전두환           ....솔직히, (똑바로 응시) 다시 생각해도 저는 잘못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정승화           !!!

싸늘한 시선으로 노려보는 전두환과 정승화.

정승화           앞으로 합수부로 들어오는 모든 보고 하나도 빠짐없이 계엄사에 매일 3시간 간격으로 보고하  
                  세요!  
전두환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화           이만 가보세요.

일어서는 전두환. 시뻘건 얼굴로 경례하고 획 돌아선다. 반준위(총장 경호원)가 비서실에서 튀어나와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한다. 현관 쪽 계단을 내려가는 전두환. 문을 꽁 닫고 나간다.  
소리가 난 쪽을 노려보는 정승화..... 현관문 밖에서 전두환도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를 노려본다.

#### 19. 서빙고 보안사 모니터실 & 취조실 / 밤

- 취조받는 김재규의 모습을 모니터거울로 지켜보는 이학봉.

조사관           (책상을 치며) 배후가 있을 거 아니냐고. 배후가!

- 모니터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전두환이 들어와 이학봉 옆에 앉는다. '충성' 경례에 대꾸도 없이,  
조사실의 김재규를 노려보는 전두환. 살벌한 기운이 활활 느껴진다.

전두환           조사보고서 갖고 와봐.  
이학봉           (재빨리) 여기 있습니다.  
전두환           (보고서 넘겨보며) 정총장. 이름 몇 번 나왔다고?  
이학봉           (긴장한) 예? 그.. 총장님은 이미 공모 혐의 없음으로...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전두환 (취조실의 김재규를 노려보며) 저 인간 말이야. 각하를 시해하는 순간에,  
정총장을 왜 거기 부른 거야?  
이학봉 (보면)  
전두환 다시 조사해. 누가 누구랑 어떻게 공모했는지! 누구랑 사전에 입을 맞췄는지!  
특히... (사나운 시선으로 속 보며) 그 자리에 있었던 인간들.  
이학봉 (의도를 알아채고) 네, 처음부터 기리까이 하겠습니다.

### 20. 필동 수경사 사령관실 / 낮

장태완의 가족사진이 보인다. 한쪽으로 간이침대와 모포, 숙박을 위한 단출한 세간이 들어차 있고,  
김진기 헌병감이 소탈한 사령관실을 둘러본다. 곧 문이 열리고, 장태완이 급히 들어선다.

장태완 웬일로 직접 다 찾아오시고.  
김진기 예, 근처에 왔다가. 요새 댁에 안 들어가십니까?  
장태완 예하 부대 점검하느라 할 일이 아주 태산 같아요.  
부임하는 날부터 자리를 깔아 버렸습니다. 어떤 일로?  
김진기 (주위를 슬쩍 살피고는) 잠깐 나가실까요? 날도 좋은데.

연병장. 부관들을 멀리 떨어트려 놓고, 커피를 마시는 두 사람.  
김진기가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건네준다. 장태완이 받아서 보면,  
‘하나회 명단’, ‘하나회 특이동향’ 이라고 표지가 붙은 두 개의 문건이다.

김진기 출처는 묻지 마시고요.  
장태완 (넘겨서 보면)  
김진기 하나회들끼리 군 개편 안까지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장태완 군 개편 안이요?  
김진기 장성들 인사까지 직접 개입하겠다는 건데,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까지 지들이 고르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장태완 (한숨)  
김진기 최근에 미국방부에서 여기 대사관으로 보내온 1급 기밀에 전장군 언급이 있습니다.  
장태완 (보면)  
김진기 간단합니다. 전두환을 조심하라고.  
장태완 .....  
김진기 저랑 같이 총장님을 만나서 언지를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고민하는 장태완.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뿌리더니,

장태완 저는 같은 군인끼리 뒤에서 누굴 이려고저려고 하는 거가 좀,  
하나회들이랑 다른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결국엔 그런 게 정치 아닙니까?  
김진기 .....  
장태완 하나회 명단은 제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두환이는 일단 총장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걸 두고 보는 게 좋지 싶습니다.  
김진기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장군님 뜻이 그러시면 저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21. 삼각지 국방부 본관 옥상 / 오후 (\*장소 바꿀 예정)**

홀컵으로 굴러 들어가는 하얀 공. 털코트를 입은 노재현 국방장관이 퍼팅 연습 중이다.  
태극기와 국방부기가 휘날리는 옥상. 바닥에 깔린 퍼팅용 그린매트. 정승화 총장은 우두커니 구경만 한다.  
옥상 반대편에는 별간포와 경계병들, 그 아래는 육군본부와 용산미군부대가 펼쳐져 있다.

노재현 (퍼팅 동작) 겨울은 보내고 하자니까요.. 아직 김부장 공판도 남았고.  
정승화 장관님! 합동수사본부를 지금 해체 못하면 화근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거는 보셨습니까?

조간신문을 들어 보이는 정승화. 노재현이 눈매를 찡그리며 대충 보면,

노재현 박대통령 치적들 아닙니까? 뭐, 문제라도...  
정승화 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기사를 이렇게 써라 마라 지침을 내린다는 게 문젠데요.  
부정축재자 척결 빌미로 시해사건과 관련 없는 자들까지 멋대로 조사하고, 겁박하고,  
전 소장 이 사람 이대로 계속 두면 안 됩니다.  
노재현 (다시 퍼팅 연습) 그 친구가 그래도 따르는 사람도 제법 많고,  
정승화 그 하나회가 제일 문젠데요. 장관님도 아시면서.  
노재현 (신중히 퍼팅을 준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면 젊은 사람들이라,  
정승화 혹시 전 소장한테 뭐 받으신 거 있습니까?

탁- 뽕사리 나며 맞는 공.

노재현 받다니요? 누가? 내가? 차암 나.. 어디서 그럽디까?!  
정승화 (뻘뻘히 보면)  
노재현 거 싫다는 데 책상 위에 부득부득 놔두고 간 건 있습니다.  
손 하나 안 댄 채 그대로니까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비서관이 차쟁반을 들고 옥상까지 올라왔다. 비서관이 내려갈 때까지 대화가 중단된다.

노재현 (비서관이 안 보이자) 그래요 뭐.. 정총장 뜻이 워낙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정승화 합수부 해체 이후에 군 인사 개편이 있을 거니까,  
일단 전 소장은 동해사령부 정도로 보낼까 합니다.  
노재현 그렇게나 멀리?

Cut to. 옥상 계단 바로 아래, 비서관이 쪼그리고 앉아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

22. 종로 보안사 사령관실, 하나회 몽타주 / 밤

커튼이 닫혔고 침침한 조명.. 젊은 장교의 뒷모습, 손을 들고 선서한다.

장교1               본인은 하나회 선, 후배, 동료 간의 화합과 전우애를 최고의 명예로..

앞에는 전두환과 하나회 선배가 앉아있다. 선서하는 장교의 얼굴이 계속해서 바뀐다.  
전두환 옆의 선배 장군도 노태우, 백운택, 박준병으로 바뀌고,

장교2               하나회원 간에 취득한 정보에 대해 절대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장교3               만약 이 서약을 어기거나 조직을 이탈할 시, 어떠한 처분도 감내하며

맹소령              하나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경례) 충성!

마지막 장교(맹소령)에게 전두환이 술잔을 주고 시바스 리갈을 가득 따라준다.

두환               무슨 명령을 내려도 자넨 무조건 복종할 건가?

맹소령              .....(눈빛) 예.

두환               에이~ 그럼 안돼지~

딸깍, 허화평이 급히 들어와 전두환을 향해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두환               뭔데? (물끄러미 보는)

허화평              .....(입술만 깨무는)

두환               표정이 머 그래? (맹소령에게) 저 사람 알지?

17기에서 제일 똑똑하기로 유명한 허화평이..

허화평              (자르며) 중요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두환               ?.....!!

23. 연희동 전두환 자택 / 낮 - 저녁

메리야스만 입은 전두환이 기보를 펼쳐 들고, 혼자 바둑을 둔다. 줄담배를 뽕뽕 피우면서  
한 수 한 수 놓는 심각한 얼굴. 드르륵, 미닫이문으로 고개를 내미는 아내 이순자.

이순자              노태우 장군 오셨어요.

서둘러 들어와 전두환 앞에 앉는 노태우.

노태우              맞네. 자긴 동해안 경비대로 전출시키고. 난 56사 예비사단으로 귀양가고.  
지방으로 돌리는 인간들. 죄다 우리 쪽 사람들이네.

전두환              (화를 누르듯 담배를 꺾꺾 눌러 꺾다)

노태우              장태완을 수경사로 불러들일 때부터 김새가 영 안 좋더니.

계엄사령관이라 잡아넣을 수도 없고... (한숨) 이대로 우리 다 나가리 되는 거냐.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전두환        나가리 같은 소리 하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계엄인데?  
계엄은 끝나게 돼있어. 계엄사령관이라고 못 잡아넣을 이유 있어?  
노태우        (불안한) 니 설마...  
전두환        정 총장 그 자, 각하가 돌아가시는 날, 각하 심장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를 들은 놈이야.  
김재규랑 한 패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건데?  
노태우        건 그렇지만 서도...  
전두환        자기,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 난 동지들한테 안부 인사 한 번 쭉 돌아봐.  
노태우        돌아서?  
전두환        간을 함보라고.  
노태우        두환아. 나는 니가 하자는 데로 따르다, 알지?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기라,  
상대는 육참 총장에 계엄사령관이다.  
전두환        어이. 이 함 봐봐라. 누가 이기겠나?

쳐다보는 두 사람. 검은 돌과 흰 돌의 땅따먹기 경합이 빼곡히 바둑판을 채우고 있다.

노태우        나는 모르지. 바둑을 모르는데.  
전두환        나도 몰라. 결국엔 다 가봐야 아는 기지.  
노태우        가봐서 아니면? 감당 우에 할긴데?  
전두환        수 싸움이란 거, 결국엔 다 기세거든. 가보고 안 되면... 판 싹 다 엎어버리지.  
그럼 최소한 무승부는 간다 이기야. 그러다 이기면, 전부 내판 되는 기고.  
(눈을 번뜩이며) 계엄사령관? 나 전두환이야. 누가 썬 가 함 보자고.

가만히 듣고 있다 말없이 전두환의 담배 한 대를 꺼내 피우는 노태우.

노태우        전장군. 니나 내나... (회환이 담긴) 많이 왔다. 여까지 왔으면.  
뭐, 어찌 됐든, 바둑은 또 두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슬그머니 손을 잡으며) 내 부탁할게.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라.

시간 경과.

노태우가 떠나고, 어둑해진 응접실 안. 재떨이에 담배꽂초가 수북하다.  
어둠 속 브라운관 티비 불빛만 켜져 있고, 여태 혼자 앉아 티비만 쳐다보고 있는 전두환 인데,  
티비 화면으로 체육관을 가득 메운 군중들의 모습이 보인다.

(기자)        금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 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는 의장. ‘...찬성 2465표, 무효 84표로 최규하 후보자가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수와 함께 단상에 오른 최규하가 태극기를 흔들고... 어둠 속, 화면을 보는 전두환의 붉게 상기된 얼굴.  
열은 미소를 지었다가 서서히 무서운 눈빛으로, 초식동물을 앞에 둔 포식자마냥 잡아먹을 듯 노려본다.

24. 긴급조치 해제 몽타주 (당시 방송 보도자료 포함)

촬영하는 기자들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석방된 민주 인사들이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풀려난 아들을 안고 우는 노모도 보이고, 환하게 웃는 석방자들과 가족들.

동교동. 김대중의 자택 앞. 기자들이 모여 있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  
가택 연금이 풀린 김대중이 집 앞에 나와 손을 흔들며 보인다.  
자막, '1979. 12. 08. 긴급조치 9호 해제.'

거리. 학생들이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며 지나간다.  
멈춰 서서 전단지를 읽는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환호하는 학생들의 모습 등.  
긴급 조치 해제에 따라 봄이 찾아온 거리의 풍경들이 보여 지고,

도로 위. 신이 난 소년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를 다니며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다.  
뒷좌석 차창 너머로 전단지를 받는 누군가. <마침내 찾아온 서울의 봄...>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김대중이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다는 전단지를 읽는 전두환이다.  
싸늘하게보다 그대로 구겨버리는 전두환.  
차량이 다시 출발하고, 어딘가로 이동 중인 전두환의 차량.

25. 종로 보안사 사령관실 - 베란다 / 늦은 오후

노크하고 문이 열린다. 노태우가 들어섰는데 텅 비어 있는, 전두환이 안 보인다.  
대형 창문 귀퉁이의 커튼이 훑날리는? 다가가는 노태우.. 창문 끝이 문이고 조금 열려 있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 있는 두환을 발견하고 나간다.

노태우            추운데 뭘해? 안으로 들어가지~  
전두환            (대꾸 없이 가슴 안쪽에서 서류를 꺼내 준다)

서류를 보곤 표정 변하는 노태우. 김재규의 진술서. 정승화 총장이 개입돼 있다는 기록이!!

전두환            이제 빠꾸 없어. 직진이다 무조건.  
노태우            니.. 진짜가?  
전두환            태우야. 시간 끝다 소문나면 우리 끝장이다.  
노태우            니하고 내하고 정총장을 우째 자빠뜨리노?  
전두환            안 되지. 동지들 전부 불러 모아. 젊은 애들은 내가 잡을 건데, 노땅들이 문제다.  
                      니가 밑밥을 미리 쳐놔야겠다.  
노태우            바람은 잡아놔어. 다 쫓겨나는 마당이라 원성들이 뭐 자자해.

전두환이 멀리 경복궁 너머로 30경비단과 청와대를 바라보며 연기를 후욱~~

노태우            니 진짜... 전 장군. 우리 이거 잘못되면... 두환아...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담배를 꺾어 씹고 끄는 전두환. 이미 콩초가 잔뜩.. 스윽 돌아보는 얼굴이 살벌하다.  
그 섬뜩한 기운에 움찔하는 노태우.

전두환 (한 마디씩 씹으며 내뱉는) 5. 16때, 각하가 목숨 걸고 혁명에 성공했는데도  
다들 긴가 민가 할 때, 나 이 전두환이가 육사 생도들 싸그리 불러다  
축하 퍼레이드 깔면서 잔칫집 분위기 만든 거. 기억나지?  
나는 그 때... 단 한 순간도, 단 일 초도!  
이 역사적인 혁명이 실패로 끝날 거란 의심을 해 본 적이 없다.

노태우 (쳐다만 보는데)

전두환 그러니까 니도. 다시는 내 앞에서. 잘 못 된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라.

기에 눌러 그저 쳐다만 보는 노태우. 불안한 템포의 사운드 서서히 고조되고.

### 26. 종로 보안사 정보실 / 늦은 밤

전두환이 이학봉과 함께 복도와 계단을 빠르게 걸어가는.. 상기된 표정이다.  
<정보실> 문 앞에서 숨을 한 번 몰아쉰다. 옷매무새를 바로잡고는 덜컥, 들어서면,

온갖 감정장비로 가득 찬 공간에 자욱한 담배 연기.. 정보요원은 하나도 없고..  
중앙통로에 모여 앉은 하나회 선후배들.. 유학성, 차규현, 황영시, 백운택, 선배 장군들 중심으로  
뒤로 앉고 서 있는 박준병, 최세창, 박희도, 장기오, 장세동, 김진영 등  
노태우가 막 들어선 전두환에게 벌써 대충 얘기를 했다는 표정을 건넨다.

전두환 (좌중을 둘러보고) 우리 하나회 주축 회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마,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상의했어야 하는 건데,  
워낙 한시가 급한지라 우리 노태우 소장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개 숙이며) 이리 공색하게 모시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황영시 서론 생략하고, 다 들었는데... 진짜 할 거야?

전두환 먼저 간단히 봐주십시오.

전두환. 눈짓을 주면, 이학봉이 가져온 서류를 신속하게 나눠준다.

이학봉 정총장의 혐의점 두 가지에 집중해 내란방조 죄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류를 나눠채 날카롭게 살피는 유학성.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읽는 표정들..  
기대 반, 우려 반 섞인 시선으로 전두환을 쳐다보는 눈빛들.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데,

황영시 실패하면? 어떡할라구??

전두환 선배님, 우리 후배님들 모아놓고 어째 실패부터 얘기하십니까?  
저는 조사한 바에 따라, 군인으로써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황영시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는 게 무슨 의미인 진 알고 하는 거야?  
                      정총장이 순순히 나오겠냐고? 공관에서 연행하다 무력충돌이라도 나면? 그게 바로...  
유학성            (목소리 줄이며) 쿠데타야...

결국 나오고 만 단어에 심각해지는 분위기. 다들 침묵하는데,

전두환            (피식 웃으며) 거참, 혁명이란 아름다운 소릴 놔두고...  
노태우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안 그랬습니까?  
황영시            도장 받아놨어? 저쪽이 순순히 안 해 주면?  
전두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거 아닙니까?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안 하겠습니까.  
                      (선배들 스윽 둘러보고) 솔직히 여기 귀양살이 둘다 옷 벗고 싶은 분 있습니까?  
일동                .....  
전두환            (뒤쪽에 앉은 젊은 장교들을 보며) 여기 대령이하 잘 들어라.  
                      니들 서울대 갈 만큼 공부 잘했지? 근데 집구석에 돈 없어 먹여주고 재워주는 육사 왔지?  
                      근데 좇도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온 노땅 똥차들 줄서가 있으니까 아직도 별 못 달고 있지?  
                      억울해, 안 해? 싹 다 몰아내고, 대한민국 군대 제대로 한 번 세워보자 이 말이다, 어?!  
일동                .....  
전두환            선배님들, 후배님들. 저 긴 말 안하겠습니다.  
                      혁명의 밤은 짧지만 그 영광은 오래 될 것ियो.  
                      그 영광을 나 혼자 가지지 않을 거란 거, 그 하나만 믿어 주십시오.

다들 한동안 침묵. 서로 눈치만 보는 무거운 분위기가 흐른다.

황영시            전 장군. 이거 하나만 얘기해. 지금 한 말. 책임 질 수 있어?  
전두환            어떻게, 제가 혈서라도 써 보여드려야겠습니까?

다시 침묵이 흐르고, 그 와중에 차규현에게 도와달라는 눈짓을 주는 노태우.

차규현            일단... (눈치 보며) 오늘은 우리끼리 얘기를 해 보는 거니까... 날짜는?  
노태우            (대신 나서며) 체포는 개각 발표 있기 전날로 잡았습니다. 13일이 개각이니까,  
전두환            12월 12일!  
황영시            만에 하나 교전이 벌어지면... 우리끼리 총질인데,  
                      수경사 장태완, 특전사 정병주는 어쩔 건데? 둘 다 우리말 들을 인간들이 아닌데.  
전두환            작전 당일, 그 두 사람에다, 각 공관 검문소 책임지는 헌병감까지,  
                      전부 한 자리에 묶어 둘 겁니다.  
황영시            어떻게?  
전두환            ...잔치를 벌여야 안 하겠습니까?

27. 효창동 수경사 야포부대 / 낮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망원경 시점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맑은 날이라 서울역 너머로 시청, 그 뒤로 세종로 이순신 장군상, 중앙청, 경복궁, 청와대까지 뚜렷이 보인다.  
효창운동장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장태완이 수경사 관할 야포단 1개 포대를 시찰 중이다.  
야포 단장으로부터 155, 105밀리 곡사포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박동원 대령이 뭔가를 전한다.

장태완 (의외라는 듯) 누구? 누가 보자고?

### 28. 필동 수경사 사령관실 / 낮

장태완 앞에 보안사 허화평 대령이 뒷집지고 서 있다.

장태완 전장군 생일? 그 나이에 잔치는. 식구들끼리 미역국이나 찜겨 먹을 것이지.  
허화평 사령관님,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님, 김진기 헌병감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으시답니다.  
장태완 먹은 셈 치고. 내 인사는 전 장군한테 따로 할 테니까.  
허화평 식사도 식사지만... 비상시국에 따른 군 운용과 곧 있을 진급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자,  
장태완 (정색하며) 군인 진급을 왜 장군들이 논의하나? 인사 책임자가 규정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을!  
허화평 (물러서지 않고 침착하게) 사실은... 이번에 전두환 장군이 동해 쪽으로 발령 날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 장군께서도 이미 받아들이신 거 같고...  
가시기 전에 세 분 모시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눈치 신 거 같습니다.

그 소리에 수그러지는 장태완. 잠시 고민하더니,

장태완 보안사로 연락을 줄 테니까. 그리 알고 가 봐.

### 29. 종로 보안사 사령관실 / 밤

테이블에 전두환, 노태우, 허화평 세 사람만이 앉아있다. 심각한 분위기.

허화평 전 장군님 말씀대로 동해경비대 소식 전하니까, 반응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전두환 그 인간 그래보여도 정에 약해.  
노태우 확실한 답은 안 준 건데. 올까?  
전두환 못 먹어도 고 아냐? 가보면 알겠지.

일어서는 전두환이 벽에 걸린 대형 전도 앞에 선다.  
서울과 수도권 관할 대형 전도에 시간대 별로 작전계획들이 뿔뿔이 적혀 있다.  
전두환, 매섭게 작전지도를 응시하면,  
작전 지도 중앙의 경복궁 30경비단 작전본부 이미지에서, 서서히 디폴드되면 화면...

### 30. 경복궁 30경비단 연병장- 복도 - 작전실까지 / 낮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실제 30경비단 직부감 화면으로 연결된다. 빠른 템포의 사운드 이어지며,  
별을 단 지프 차량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분주하게 차량들을 인도하는 경비병들.  
하나 씩 도착하는 쿠데타 주역들이 기세등등하게 차량에서 내리고,  
유학성(육사 1기), 차규현(육사 8기), 황영시(육사 10기), 백운택(육사 11기, 하나회), 박준병(육사 12기, 하나회),  
최세창(육사 13기, 하나회), 박희도(육사 12기, 하나회), 장기오(육사 12기, 하나회) 등,  
육사 기수와 하나회 여부가 자막으로 소개된다.  
30경비단장 장세동(육사 16기, 하나회)과 함께 김진영(육사 17기, 하나회) 등이 들어서는 선배들에게 거수경례를  
올린다. 다 같이 복도를 걸어가는 쿠데타 장성들. 2층 작전실로 들어서면 문이 닫히고,  
자막, '79년 12월 12일'

### 31. 종로 보안사 정보실 / 낮

문을 열고 들어서는 노태우를 따라 보안사 정보실에 가득 찬 50 여 명의 정보요원들이 보인다.  
자막, '16 : 00 종로 보안사 정보실'  
부대명이 쓰여진 통신감청 장비 앞에 헤드셋을 끼고 뻑뻑이 연결된 수백 개의 전화라인을 감청 중이다.  
맨 안쪽의 전두환이 노태우를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이 노태우에게 목례.

허화평            16시 30분 이후 전군 지휘부의 통신내용이 우리 쪽에 백프로 감청됩니다.  
노태우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는 듯 혀를 내두른다)  
전두환            (흡족한 듯)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하잖아?  
                      통신망만 붙들고 있으면, 이미 승기는 우리가 잡고 가는 거야.  
                      두고 보라고. 역사는 오늘 이 방에서 설계될 테니까.

자신만만하게 장담하는 전두환. 그러다 뭔가가 떠올랐는지,

전두환            (노태우를 보며) 수경사 쪽은?  
노태우            (고개를 젓는다)

이전의 당당한 모습과 달리 초조해하는 전두환. 시계를 보고,

노태우            우리 쪽은 30경비단으로 전부 모여가 있다.  
전두환            기다리라고 해.  
노태우            기다리라고? 우리가 당장 안 가면 다들 불안해 할 텐데. 어떡하게?  
전두환            그 인간... 움직이기 전까지 기다려.

### 32. 필동 수경사 본부건물 앞 / 낮

태완의 처가 쇼핑백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남편 속옷을 챙겨 온 것이다.  
장태완이 현관으로 나와 만난다.

장태완            맡겨 놓고 가면 될 거를.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처 (서운하다) 얼굴은 용케 알아보시오.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장태완 참, 사람... 애들은?  
처 잘 있어요. 식사는 챙겨 드세요?  
장태완 나 밥 안 줄까봐 그래. (쇼핑백을 가져가고)  
들어와 차 한 잔 하라고 하고 싶은데, 인수인계 땀에 정신이 없어요.  
처 존대하는 거 보니 미안하긴 한가보오.  
장태완 (슬쩍 웃지만 미안한 눈치다)  
처 속옷이랑 양말 넉넉히 뒀으니까 제때 갈아입고 다녀요. 나 망신 주지 말고.  
장태완 속옷을 누가 본다고. 어여 들어가요.

손을 들어 보이고는 돌아서 걸어가는 장태완. 무뚝뚝한 남편이다.  
맞은편에서 박동원 대령이 서둘러 오다 마주친다.

장태완 왜 나와?  
박동원 사모님 오셨다고. 인사드리려고.  
장태완 갔어. 들어가.  
박동원 예예? 아니 차라도 하시지.  
장태완 (대꾸 없이 걸어가다) 참, 오늘 몇 시라고 했지?  
박동원 십팔 십니다.  
장태완 씨... 바빠 죽겠구만.

### 33. 몽타주, 작전 개시

- 보안사 사령관실. 초조하게 기다리는 전두환과 노태우.  
이 때 허화평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선다.

허화평 수경사에서 출발했던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를 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급 화색이 돈다.

- 끼이익- 30경비단에 급히 멈춰서는 지프. 서둘러 내리는 전두환과 노태우, 허화평.

- 허화평을 앞세우고 빠르게 복도를 걸어가는 전두환, 그 뒤의 노태우와 측근들.

벌컥- 30경비단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들어찬 장군들 시선이 일제히 전두환에게 쏠린다.  
긴장된 시선으로 쳐다보는 장군들을 마주하는 전두환. 애써 담담한 척,

- 육본 참모총장실. 퇴근하려는 정승화 총장에게 비서관이 결재서류를 가져온다.

김재규관련 수사보고서! 외투를 걸치면서 서류를 훑어보는 정총장. 그 위로 허화평 목소리,

(허화평) 정총장의 연행과 대통령 승인을 동 시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 30경비단 작전실. 서울시 작전 전도가 펼쳐져 있고, 그 앞에서 장군들에게 브리핑 중인 허화평

허화평            18시 30분. (지도의 총장 공관 가리키며) 허삼수 대령이 총장 공관으로 이동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합니다. 총들을 대비해 2개 소대 병력도 같이 갑니다.

- 33헌병대, 실탄을 지급받는 반란군 병력. 수경사 소속 33헌병대원들이다.  
선도차량 슈퍼살롱에 탑승하는 허삼수, 우경운 대령(육사 13기, 하나회).  
그 뒤로 두 대의 미니버스에 무장 병력 50여명이 탑승한다.

- 지도 이미지 위로,

(허화평)            같은 시각, 전두환 소장님은 총리공관으로 이동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사령관 연행에 관한 승인을 얻을 것입니다.

### 34. 경복궁 30경비단 본부 앞 / 낮

탁- 지프에 올라 문을 닫는 전두환. 이학봉이 운전석에 탑승한다.

전두환            보고 서류 챙겼지?  
이학봉            예, 전부 챙겼습니다.

출발하는 지프. 이때 병사 하나가 황급히 달려와 차를 막아 세운다.

이학봉            (차창을 열어 앞에 대고 소리친다) 뭐야?!  
전령            (달려와) 노태우 장군님께서 차를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전두환            뭐? 왜애?!

뒤이어 헐레벌떡 달려오는 노태우. 전두환이 차창을 내리면,

노태우            (숨을 몰아쉬며) 정총장이 갑자기 보자는데?  
전두환            뭐? 씨발... (열이 받아) 새 나간 거 아냐?!  
노태우            근데 목소리는 차분했어. 가서 일단 들어봐.  
                      (이학봉에게) 무장했지?

이학봉            예.  
노태우            비상 상황 발생이면, 무조건 전 장군부터 챙겨라이.  
이학봉            (긴장한) 예, 알겠습니다.

### 35. 한남동 총장공관 입구 - 거실 - 집무실 / 늦은 오후

- 공관으로 들어서는 전두환과 이학봉. 두 사람 다 잔뜩 긴장한 얼굴이다.  
거실 안쪽 집무실 앞에 서는 두 사람. 서로 긴장된 시선을 주고받고, 전두환이 조심스레 미닫이를 당긴다.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 거실 안 집무실, 전두환이 들어서면, 정총장이 고개를 든다.

전두환           총장님. 부르셨습니까?

정승화           (이학봉 보며) 밖에서 기다리게.

멈칫하는 이학봉. 전두환을 보면, 짧은 순간 시선을 교환한다.

불안한 표정을 숨긴 채 거실로 나가는 이학봉.

전두환은 긴장한 눈으로 정승화의 주변을 살핀다.

정승화는 마음이 복잡한 듯 전두환을 등진 채 창밖을 보고 있다.

정승화           전 장군. 내 다 알아.

전두환           (얼음이 되는) 예에?

천천히 돌아서는 정승화. 빛을 등지고 있어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

정승화           자네 기분 모르겠나. 동해로 발령 내서 언짢은 거.

전두환           ...아, 아닙니다.

정승화           군인이 나라 지키는데 장소가 중요하겠나. 군대 쇄신을 위해 힘 좀 보태주게.

전두환           (아직 의아한) 꽤, 꽤넘치 마십시오.

정승화           고맙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나라도 어수선하고 북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해이해졌잖나. 곧 김부장 공판인데... 국민들 시선이 집중될 거 아닌가.

그 때 김부장이 최종 발언에서 용공분자들을 경계하는 말 좀 하게 해주면 어떨까하는데.

전두환           (아직 의심하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

정승화           김부장은 좀 어때?

전두환, 그제야 '아하' 김부장은 어떤가 해서 날 불렀구나 싶은.

전두환           후회를 뼈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승화           ...마무리 부탁하네.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전두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화           그래. 부탁함세.

전두환           (잠시 더 눈치를 보다) 그럼...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경례하고 돌아서는 전두환. 잠시 멈칫하더니,

전두환           참, 지난 번 조사 관련해서 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따 정보처장 시켜서 방문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승화           오늘?

전두환           예. 법원 놈들이 아주 난리라서요.

정승화           (끄덕이며) 그렇게 하세요.

표정을 안 들키려고 애쓰는 전두환, 정승화와 마지막으로 눈을 한번 마주친다.  
정중하고 진심 어린 경례! 돌아서는 전두환.

36. 한남동 총장공관 앞 / 노을

서둘러 지프에 오르는 전두환. 후, 긴장이 풀리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앞좌석에서 어찌 된 거냐고 문듯 뻘뻘 바라보는 이학봉인데,  
손짓으로 담배부터 달라는 전두환. 길게 한 모금 쭉욱 빨더니,

전두환            이따가 정보처장 시켜서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계획대로 진행 시켜.  
이학봉            뭐 때문에 부른 겁니까?  
전두환            지발 저려서.

그러곤 혼자 웃는 전두환을 가만히 쳐다보는 이학봉.

전두환            하아... 30경비단에 무전 때려. 오늘 잔칫날 제대로 잡은 거 같다.

전두환을 태운 지프가 출발하면, 붉은 노을에 물든 12월의 한남동 풍경이 펼쳐진다.  
자막, '작전명 : 생일잔치'

37. 신세계 앞을 달리는 차량 안 / 황혼

퇴근길 시내.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피어나는 활기찬 거리와 시민들을 바라보는 장태완.

장태완            (운전 중인 박동원에게) 집에 못 들어간 지 얼마나 됐지?  
박동원            (룸미러로 보며) 팔 일 째입니다.  
장태완            나야 원래 그러려니 하는데, 자긴 그러다 쫓겨날라 그래?  
박동원            (웃으며) 하도 안 들어가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러려니 합니다.  
장태완            도착하면 우리 집에 전화 좀 넣어 줘. 나 오늘은 들어간다고.  
자기도 오늘은 가서 마눌하님 얼굴 좀 보고와.  
박동원            예~ 알겠습니다.

38. 세종로를 달리는 33헌병대 차량행렬 / 황혼

장태완이 보던 차창 풍경이 이동하면, 다른 차량의 내부로 이어진다.  
경직된 표정의 허삼수와 우경윤. 불길한 사운드 시작되고, 총장 연행 팀이 세종로를 가로지른다.  
이순신 장군상과 국제극장과 대형아치를 지나는 행렬의 맨 뒤에 두 대의 미니버스가 달린다.  
헌병지프 안. 상기된 얼굴의 성환옥 대령(육사 18기, 하나회)이 권총을 장전한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 39. 연희동 골목 - 고급주택(요정) 앞 / 이후 계속 밤

어두운 골목. 연희동의 고급 주택가를 이동 중인 지프.

장태완 (차창 너머를 보며) 어디야 여기가?

박동원 거의 다 왔습니다.

지프는 담장이 높은 고급 주택 앞에 멈춰 선다.

앞에 나와 기다리는 마담을 보곤 눈치 채는 장태완.

장태완 (어이가 없는) 뭐 이런 데로 불러? 전두환이는 이런 데서 술 마시냐?

박동원 어떻게 할까요?

짜증이 올라오는 장태완. 이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어느 새 달려온 조흥 대령이 문을 연다.

조흥 오셨습니까, 장군님!

장태완 조흥? 왜 여기 있는 거야?

조흥 전 장군께서 갑자기 총장님이 부르시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신다고,  
그동안 대신 장군님들을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장태완 주인공이 없어?

조흥 죄송합니다.

조흥이 연 차문을 쿵! 다시 닫아버리는 장태완.

장태완 (박동원에게) 가 그냥.

박동원 예?

장태완 뭐해 안가고? 출발해.

이때 다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지프가 한 대가 코앞에 멈춰 선다.

지프에서 내리는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쪽으로 오더니,

정병주 (반기며) 장 장군! 뭐해요? 안 내리고.

### 40. 한남동 총장공원 입구 검문소

지그재그로 바리케이드를 지나 경비 초소 앞에 멈춰서는 슈퍼살롱.

경비병1 (경례하며) 필승! 무슨 일이십니까?

운전병 보안사 정보처장님이시다.

뒷좌석을 보고 경례를 붙이는 경비병. 굳은 표정으로 경례를 받아주는 허삼수.

입구 문이 열리고, 슈퍼살롱이 진입하면, 다른 차량 안에서 그 모습이 보인다.

멀리 떨어져 대기 중이던 지프와 미니버스 두 대가 초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 41.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입구 검문소

한남동 공관과는 다른 복장의 헌병대가 지키고 있는 검문소. 전두환의 차량이 도착한다.  
운전석의 이학봉이 차창을 열며,

이학봉                보안사령관님입니다.

충성! 크게 외치는 헌병의 경례를 받으며, 유유히 지나가는 차량.

#### 42. 한남동 총장공관 검문소

경비 초소 앞에 와 서는 지프와 미니버스 두 대.  
지프의 성환옥 대령이 차창을 연다.

경비병1            필승!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성환옥            수고한다. 공관 경비 교대 병력이다.

뒤쪽을 보는 경비병1. 병력을 태운 미니버스 2대가 서 있다.  
즉답하지 않는 경비병1. 초소 쪽에 상관으로 보이는 경비병2에게 간다.

경비병2            교대 병력이라며? 들여보내.

경비병1            그게... 평소보다 너무 많은데요.

지켜보는 지프 안의 군인들. 그중 한 명이 살짝 권총이 있는 주머니에 손을 댄다.  
다가오는 경비병2. 경비병1보다 날카로운 눈빛.

경비병2            차량 안을 확인하겠습니다. 전부 하차해 주십시오.

성환옥            어이, 나 헌병감실 성환옥 대령이야. 적당히들 하지.

경비병2            죄송합니다. 전원 잠시만 하차...

순간, 경비병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는 성환옥! 놀란 경비병1이 총을 겨누려는데,  
지프에 탄 군인들이 일제히 총구를 들이밀고, 동시에 미니버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33헌병대가  
검문소 경비병들을 발로 차고 개머리판으로 찍으며 단숨에 제압한다.

#### 43.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

공관으로 이어지는 계단. 대통령 경호실장 정동호(육사 13기, 하나회)가 전두환을 맞이한다.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 정동호가 전두환을 데리고 안으로 이동하고,

계단 아래. 정차된 지프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학봉.

#### 44. 국무총리 집무실

각종 서류를 검토 중인 대통령 최규하. 전두환이 들어온다.

전두환           충성! 각하, 늦은 시각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규하           (깨끗하게 보며)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전두환           각하. 지금 당장 결정해 주실 사안이 있습니다.  
최규하           이 시간인데요?  
전두환           각하, 저도 심려 끼쳐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최규하           (불안한 시선, 의자에 몸을 젖힌다)

#### 45. 연희동 요정

정병주 사령관이 장태완의 술잔을 채운다. 다 같이 건배~  
장태완은 마시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는다. 마담의 재담에 박장대소하는데..  
조흥은 구석에 앉아 초조한 눈길로 시계를 힐끔 살핀다.

정병주           김재규가 엿그제 공판에서 <네 단독범행이다~> 이랬다니까  
                    정총장님이 한 시름 좀 놓는 거 같더라구.  
김진기           다행이죠~ 이상한 루머가 돌아서 마음고생이 크셨을 건데..  
조흥           (마담과 눈길을 마주친 후) 저기... (눈치 살피며)  
                    애기들 좀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장태완           전 소장은 왜 여태 안 와?  
조흥           죄송합니다. 총장님이랑 얘기가 길어지시나 본데, 제가 한 번...  
장태완           아냐, 내가 총장님께 전화해보지. (마담 보며) 마담, 전화 있는 데가?  
조흥           (당황) 제가 하겠습다.  
정병주           놔둬. 아무렴 대령보다 수경사령관 말빨이 더 먹히지. 여 한 잔 받아.  
조흥           (한 잔 급히 받아 마시고) 일단 먼저 제가 알아보고,

덩치가 커다란 조흥이 바지를 추키며 서둘러 나가는데, 엉덩이골이 보인다.  
문이 닫히면 하하호호 웃는, 장태완은 조흥의 행동이 왠지 미심쩍다.

#### 46. 한남동 총장공관 거실

허삼수와 우경윤이 수행부관(이재천 소령)의 안내로 들어서고, 보안사 직원 2명이 뒤따라온다.  
거실 입구에서 반일부 준위(총장개인경호)가 앞을 막아선다.

반준위           네 명씩이나 오셨습니까?  
우경윤           (돌아보며) 너희들은 비서실에 있어.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보안사 직원 2명은 비서실로 들어간다. 업무를 보던 김인선 대위(경호장교)와 김영진 병장(당번병)이 목례로 간단히 인사하고, 보안사 직원들은 한 편에 양전하게 앉아 허리를 세운다.

- 거실. 소파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허삼수와 우경윤.  
외출준비를 마친 정승화 총장이 코트를 입으며 2층 계단에서 내려온다.  
벌떡 일어서는 허삼수와 우경윤.

정승화            그냥 앉아요. 내가 외출 땀에 나가봐야 되니 좀 서두릅시다.  
보안사 정보처장이랴?  
우경윤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진급 심사에서 별을 달아주실 줄 알았는데,  
저만 쏙 빠져서 서운합니다, 총장님.

은근슬쩍 웃는 우경윤인데, 정총장은 기분이 상해 분위기가 싸해진다.

정승화            (애써 태연) 진급 발표 때마다 나도 섭섭해. 일일이 다 못 챙겨 주니까 말이야.  
다음엔 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지. 들어보니까 전소장이 급한 거라고 하던데.  
허삼수            김재규 재판 관련해서 총장님의 진술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정승화            (불쾌한) 진술? 내가? 뭐가 또 필요해?  
허삼수            예...  
정승화            그래 그럼. 뭘지 모르지만 여기서 바로 하지.  
허삼수            여기는 좀 그렇고, 녹음 준비가 돼 있는 곳으로 같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멍뭉치는 정총장. 허삼수와 우경윤을 번갈아 노려본다.

정승화            녹음 준비된 곳으로 가자고?  
방첩부대장을 했던 내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줄 알아?!  
허삼수            김재규의 새로운 진술이 확보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승화            뭐라고 했는데?  
허삼수            총장님과 연관된... 돈 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정승화            (발끈) 이 사람들이! 무관한 일이라고 결론 났잖아!  
허삼수            재조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승화            상부? 내가 뇌들 상관의 상관이야! 누가 그 따위 지시를 해?!  
대통령 이외에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던 얘기야?!  
허삼수            (머뭇거리다) 네, 그렇습니다...  
정승화            그럴 리가. 어제도 통화했는데 아무런 언지가... 내가 통화해 봐야겠어.

벌떡 일어서는 정승화와 동시에, 순간 확- 권총을 꺼내 겨누는 허삼수!

정승화            뭐, 뭐야 이거...?  
우경윤            (정총장을 잡아 끌며) 같이 가시죠, 총장님!  
정승화            부관! 부관!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 비서실. 정총장의 외침에 황급히 일어서는 이재천 소령과 동시에, 총을 꺼내는 보안사들!  
다른 비서관이 총을 뽑는 찰나! 탕탕탕!

- 총소리에 놀라 비서실 쪽을 쳐다보는 정총장.  
이 틈에 허삼수와 우경윤이 황급히 정총장을 끌고 가려는데,

(반준위)           총장님!

부엌에서 튀어나온 반준위가 권총을 꺼내들고 허삼수와 서로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탕탕! 비서실에서 나온 보안사들이 반준위에게 먼저 총격을 가한다.  
재빨리 몸을 피하며 응사하는 반준위. 탕탕탕탕! 교전이 벌어지고,

### 47. 삼청동 국무총리 집무실

정적이 흐르는... 최규하 대통령이 김재규가 서명을 한 진술서 서류를 읽고 있다.  
그 앞에 서 있는 전두환, 최규하의 표정을 읽으려고 집중하는. 그러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음 날 청와대로 이사하기 위한 짐들이 박스에 담긴 채로 쌓여있다.

최규하           이거 다 무혐의로 결론 난 거 아니었어요?

전두환           정승화 총장 관련한 진술이 새롭게 드러난 이상 재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탁- 서류를 덮는 최규하. 전두환을 뻔히 올려다본다.

### 48. 한남동 총장공관 거실 - 외부

탕탕탕탕! 보안사들과 반준위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실 소파 뒤에 바짝 웅크린 정총장과 허삼수, 우경윤이 그 와중에 정총장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  
그걸 본 반준위가 조준사격 자세! 하지만 정총장이 맞을 까봐 당기지 못하는!  
순간 타타타타타- 엄청난 총격이 거실 통창으로 퍼붓는다!

- 공관 외부. 건물 주변을 장악한 33헌병대(반란군)가 공관 거실을 향해 난사한다.

### 49. 연희동 요정

여인들이 들어와 곁에 앉는다. 곁에서 장태완에게 술을 따르려는데, 장태완의 손등이 잔을 덮으며 사양한다.  
건배하려던 정병주와 김진기가 찡찡한 표정이다.

장태완           다들 무슨 용건으로 오신 겁니까?

정병주           예?

장태완           전 소장이 뭐라면서 초대하던가요?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정병주           미역국 먹을라구 왔죠~  
김진기           (장태완의 의중을 알고) 자리가 많이 불편하십니까?  
장태완           .....  
김진기           저도 전두환 장군이 동해경비단으로 발령 났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어쨌든 밀려나신 분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정병주           아냐, 총장님이 과감하게 하신 거야! 물려다니는 놈들 더 두고 보기 힘드니까..  
                  자아 전 소장 오면 그 애긴 하지말자구~ 여하튼 우리끼리 이리 모인 것도 간만인데.  
장태완           맞네요. 우리 셋이 이리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의미심장한) 전부 수도권 방위 사령관들 아십니까?  
정병주           (안주 먹으며 농담) 그러게. 셋 다 여기 있으니 빨갱이 내려오면 서울은 누가 지키나.  
장태완           !!!

### 50. 한남동 총장공관 거실, 외부 / 밤

- 빗발치는 총탄 속, 복부에 총상을 당한 우경윤이 쓰러져 쿨럭- 피를 토해내고 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창 쪽으로 기어가는 반준위. 총탄이 쏟아지는 반대쪽 창밖으로 몸을 던지고,  
와장창! 밖으로 곤두박질친다. 총탄에 맞았는지 다리에 부상을 당한 반준위.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고,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총탄들. 엄폐물에 몸을 숨긴 반준위를 향해 마구 난사되는데,  
  
- 끼이익! 공관 앞으로 급정거하는 지프와 트럭들. 해병경비대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해병장교           (무전기에 다급히) 공관을 공격하고 있다! 사격 개시! 사격 개시!

공관에 총격을 가하는 33헌병대를 향해 해병대 장교가 교전을 명령한다.  
해병대들이 일제히 총격을 가하면서 총성과 화염이 엄청나게 진동한다.  
그 틈을 타 절룩거리며 철망펜스로 달려가는 반준위. 훌쩍- 철망을 기어올라 넘는다.

### 51. 한남동 국방부장관 공관 / 밤

가까운 곳에서 총소리. 파자마차림의 국방장관 노재현이 커튼을 살짝 열어 소심하게 밖을 살핀다.  
그의 처가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묻는다.

노재현처           어떡한데요? 이게 무슨 전쟁이라도..  
노재현           (씻, 손가락) 애들 깨워... 나갑시다.  
노재현처           어딜요? 저렇게 총질을 해대는데?  
노재현           그니까 피해야지!

### 52. 한남동 총장공관 - 도로 - 검문소

공관 도로를 내려가는 슈퍼살롱. 운전석 시야로 해병대 병력이 검문소 출구를 막고 있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허삼수) 가아, 가. 가. 그냥 가아!!

조수석에 허삼수, 뒷좌석으로 정승화 총장을 양옆에서 보안사 직원들이 붙들고 있다.

정승화 누가 이러라고 시켰어?! 전두환이야?!

파바박! 차창이 깨지며 차량에 충격이 가해진다. 급히 몸을 숙이고,

허삼수 (운전병에게) 밀고 가아! 박아버려!!

랑! 바리게이트를 뚫고 슈퍼살롱이 정문을 빠져나간다.

### 53.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정적... 담배연기 자욱한 실내. 모여 있는 반란군 장교들. 다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노태우가 급히 전화를 받는다.

노태우 (수화기에) 뭐? 총격전?! 총장공관에서?! 총장은?!

벌떡 일어나는 장군들. 몇몇이 욕지거리를 내뿜는다.

황영시 왜 쫓대? 이런 쌍...

노태우 (수화기에) 총리실은? 전장군 어떻게 됐어? 전장군 빨리 빼내라 그래!

황영시 그냥 나오면 어떡해?! 이리 된 마당에 죽든 살든 재가를 받아와야지.

차규현 재가 못 받으면 우리 전부 내란 주동자 되는 거야!

노태우 (수화기에) 전장군 연락해! 빨리, 빨리!

수화기에 대고 소리 지르는 노태우와 곁에서 흥분해서 소리치는 장군들. 난리 통이다.

### 54. 삼각지 육군본부 외경 / 밤

자막, '육군본부'

어둠 속, 고요한 육군본부 외경. 멀리 실루엣이 달려온다.

혁. 혁. 하얀 김을 뿜으며 윤성민 참모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본부 로비에서 뛰어나오는 당직 장교들.

당직부관1 참모차장님! 한남동 총장님 공관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윤성민 (숨이 차서) 혁.. 알어, 그거땀에.. 혁, 총장님 사모님이 방금 전화.. 혁혁,

부관2 (흥분해) 무장공비가 공관을 습격했고, 공관 경비 해병대와 교전 중입니다.

윤성민 공비라고?? 사모님은 귀한들이 총장님을 납치했다고...

부관1 어떻게 할까요? 먼저.. 수경사에 상황 전달하고, 다른 부대도..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윤성민            그 모야 전군에.. 비상사태 선포부터 하는 게..  
아, 국방장관님도 한남동 계시잖아??

### 55. 한남동 공관 외부 차도변 / 밤

한남초등학교 앞 어두운 도로. 급히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아 세우는 사람.  
파자마 위에 코트만 걸친 노재현과 처, 아이들이 황급히 택시에 오른다.

기사            어디로 모실까요?  
노재현          일단 갑시다.  
기사            예?  
노재현          일단 출발하라고 빨리~!  
노재현처        여보, 복귀가 내려 온 거예요?  
기사            (놀라 돌아보며) 복귀가 내려와요?  
노재현          쓸데없는 소릴 하고 그래! 저기... 한미연합사... 용산 쪽으로 갑시다!

### 56.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

지프 안에서 대기 중인 이학봉. 밖을 살피며 담배를 피우는데, 띠리링- 카폰이 울린다.

### 57. 연희동 요정 여러 장소

- 복도. 조흥을 찾으며 복도를 서성거리는 장태완. 지나가는 마담을 붙잡고 묻는데,

장태완          그 같이 있던 젊은 대령 어디로 갔어요?  
마담            (둘러보며) 글썄요. 화장실 가셨나?  
장태완          전화 좀 합시다.  
마담            저 쪽에. (가리키면)

- 다른 방 안. 통화 중인 조흥.

조흥            (수화기에) 뭐? 총장 공관에서?! 씨... 왜 총질을 하고 지랄이야...  
                  (한숨) 총장은 어떻게 됐어?  
(장태완)        뭘 소리야 그게? 총장님이 어떻게 돼?  
조흥            !!!  
(장태완)        총격이라니? 뭘 소리야 도대체?!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놀라서 황급히 전화를 끊는 조흥.

- 또 다른 방.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장태완.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장태완 (대답이 없자) 조흥! 조흥!!

확- 방문을 열고 복도로 튀어나오는 장태완인데,

- 요정 입구. 황급히 달려 나오는 조흥이 자신의 지프에 올라탄다.  
대기 중인 지프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동원. 조흥이 운전병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소리치는 걸  
의아하게 보는데, 카폰이 울린다.

박동원 (받으며) 수경사 작전참모 박동원입니다.

- 술자리. 별적- 문이 열리며 장태완이 성난 사자처럼 뛰어 들어온다.

장태완 조흥! 조흥 대령 어딴어?!  
정병주 장장군. 왜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박동원 (급히 들어서며)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 요정 입구. 장태완, 정병주, 김진기가 다급히 요정마당을 나서는데,  
취기에 김진기는 걸음이 느리고, 정병주는 살짝 비틀거린다.

장태완 난 부대로 바로 복귀할 테니까, (돌아보면)  
김진기 저는 육본으로 가겠습니다.  
정병주 총장 공관에 총질을 했으면 북쪽 애들 짓 일 텐데. 진돗개 상황 아냐?  
김진기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장태완 나도 아는 데로 바로 연락드릴 테니까, 먼저 파악되는 쪽이 연락을 취하기로 합시다.

대기 중인 지프에 오르는 세 사람. 여러 대의 지프가 급히 출발한다.

### 58. 삼청동 국무총리 집무실

마뜩치 않은 얼굴의 최규하.

최규하 보시다시피 제가 내일 이사를 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전두환 청와대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각하!  
최규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을 지금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서류철을 밀어내며) 내일 다시 오세요.

책상에 놓인 다른 서류를 펼치는 최규하.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선 전두환이다.  
분위기가 이상한 최규하. 다시 고개를 들면,  
노골적인 항변의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전두환을 마주한다.

전두환 정총장이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안이 때를 놓쳐 정총장 귀에 들어가면, 박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는  
영영 답보상태가 될 게 뻔합니다.

최규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계엄사령관은 전소장의 직속상관 아닙니까?  
게다가 계엄사령관은 엄연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된 사람인데,  
체포하려면 최소 국방장관 동의 정도는 있어야지요. 안 그래요?

전두환 장관님이 지금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최규하 그러니까 내일 동의를 받아서 오세요. 장관님이랑 같이.

전두환 (언성이 높아지며) 내일은 늦다고 하질 않습니까?

최규하 (이게 무슨?)

#### 59. 국무총리 공관 경호실

이학봉이 허겁지겁 뛰어 들어온다. 경호실장, 무슨 일인가 슬그머니 일어서는데,  
따르릉!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 그 소리에 움찔 놀라는 이학봉. 바짝 긴장한 채로 전화기를 주시하는데,  
뭔가 안 좋은 상황임을 감지한 경호실장. 다가가 전화기를 잡는다.

#### 60. 육군본부 B2병거, 국무총리 공관 경호실 교차

- 각종 설비가 있는 육본 B2병거. 분주히 움직이는 장교들.  
그 중심에서 통화 중인 윤성민 참모차장.

윤성민 (수화기에) 그럼 거긴 별일이 없다는 말이지요?

- 총리공관 경호실. 이학봉이 초조한 눈길로 지켜보는 가운데, 경호실장이 통화 중이다.

경호실장 (수화기에) 예, 아무 일 없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즉시 경비대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끊고는) 이쪽에 경비 병력을 증원하라는데? 뭘 일이야?

숨을 고르는 이학봉. 애타는 시선으로 총리 집무실의 닫힌 문을 바라보는데,

#### 61. 필동 수경사 상황실

랑!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장태완. 예하부대 참모들이 긴장한 채 있다가 벌떡 일어선다.

장태완 전부 모인 거야?

참모1 30경비단 장세동 단장이랑 33경비단 김진영 단장은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장태완 뭐하고 있는 거야! 조흥은? 현병단장 어딴어?!

참모1 소재 파악이 안 돼 지금 신윤희 부단장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완 전화 연결 해.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 사령관실, 서둘러 사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장태완.

참모1           사령관님 연결됐습니다!

장태완           (달려와서 전화기 들고) 어, 신중령! 나 사령관이야. 이쪽으로 오지 말고,  
APC 장갑차 포함해서 기동타격대 데리고, 지금 바로 한남동 총장 공관으로 가.  
가서 공관 장악하고, 총장님 신변부터 확보해! 나도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박동원           사령관님!

다급한 표정의 박대령이 귓속말로 뭔가를 전달한다.

### 62. 수경사 복도와 보건실

속보로 걷는 박동원을 따라 복도를 지나는 장태완.

문을 열면 약품과 치료 도구가 설치된 보건실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간이침대 위에 부상 군인이 위생병으로부터 급히 지혈을 받고 있는.. 공관에서 도망친 반 준위다!

장태완           왜 이리로 온 거야? 빨리 수도병원에 보내지 않고.

반준위           그쪽은 안 됩니다... 아군끼리 쏘았습니다. 아무도 못 믿습니다.

장태완           아군?

반준위           보안사 애들입니다. 총장님을 그 놈들이 납치해 갔습니다.

장태완           !!!

서로를 보는 장태완과 박동원. 그제야 사태가 파악되는 장태완, 분노가 치민다.

장태완           전두환이... 이 개새끼..

### 63. 이동 중인 장태완 지프, 김진기의 지프 교차

확- 빠르게 화면을 치고 지나는 지프.

박동원 대령이 운전하고, 장태완이 카폰으로 김진기 헌병감과 통화 중이다.

장태완           (수화기에) 전두환이 깔아놓은 판에 우리 다 걸려든 거라니까!

그 새끼가 우리 다 불러내고는, 그 시간에 총장님을 납치한 거 같다니까!

김진기           (이동 중인 지프 안에서 통화 중) 사실이면, 이거 다 계획 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장태완           일단 전두환이 소재 파악하고,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한남동 공관으로 가고 있으니, 헌병감은 총리 공관 쪽을 확인해 보세요.

끼이익- 김진기의 지프가 급히 멈춰 서고,

김진기           (수화기에) 지금 육본 B2 앞입니다. 바로 전 장군 소재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서둘러 하차하는 김진기가 B2벙커로 들어간다.

### 64. 국무총리 공관 경호실, 30경비단 작전실 교차

- 경호실. 내부 전화로 통화 중인 이학봉.

이학봉            (수화기에, 작은 목소리로) 예, 아직 들어가서 안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기다리는 중이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는 슬그머니 자리로 가 앉는 이학봉. 좌불안석이다.

- 30경비단 작전실. 전화를 끊는 노태우 역시 노심초사, 그런 노태우만 다들 쳐다보며 속을 끓이는.  
담배들을 얼마나 피워대는지 두더지 굴이 따로 없다.  
따르릉, 다시 울리는 전화기 소리. 황급히 받아드는 노태우. 또 안 좋은 소식인지 죽상이 돼 전화를 끊고,  
자신을 초조하게 지켜보는 김진영(육사 17기, 하나회)과 눈이 마주친다.

노태우            진영이. 한남동 공관으로 가서 우리 애들 데려와라.  
김진영            예?  
노태우            해병대 애들한테 고립돼 있다니까, 책임지고 복귀시켜, 빨리!

### 65. 국무총리 공관 검문소, 육군본부 B2 벙커 교차 / 밤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를 받는 총리공관 검문소의 구정길 중령.

구정길            통신보안! 총리공관 검문소장 구정길입니다.  
김진기            나 헌병감이야. 거기 무슨 일 없나?  
구정길            충성! 예, 전두환 소장님이 방문하신 거 말고는 별 일 없습니다.  
김진기            (상기된) 전두환이 거기 있어?!

구정길            들어오신 지 한 시간 채 안 됐습니다.  
김진기            (숨을 고르고는) 구중령, 똑바로 말해. 너 하나회야?  
구정길            예? 아닙니다!  
김진기            내 말 잘 들어. 전두환 소장이 공관에서 나오면, 그 즉시 체포한다.  
구정길            예?  
김진기            체포 즉시 무장해제 시켜서 육본으로 이송한다. 알았어, 몰랐어?!

구정길            예, 알겠습니다!

구정길이 통화 중인 초소 전화기의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카메라. 화면 디졸브 되며,

### 66. 종로 보안사 정보실

빼곡히 이어진 선들 보이고, 감청장비로 연결되는 화면.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헤드폰을 낀 요원들 중 한 명이 다급히 손을 든다.  
허화평이 달려와 헤드폰을 끼고 연결선에 잵을 꽂으면, 들리는 소리.

(김진기) 참모총장님을 납치하라고 지시한 게 전두환이다.  
반항할 경우 발포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체포해!

‘이런 쌍...!!!’ 헤드폰을 벗어 던지며 벌떡 일어서는 허화평.

### 67. 국무총리 공관 경호실

따르릉! 울리는 전화벨. 바로 수화기를 집어드는 경호실장.

경호실장 (수화기에) 경호실입니다. 예, 여 와계신데...  
(돌아보더니 수화기를 들어 보이며) 오늘 뭐 날이요?  
이학봉 (다가가 수화기를 받아들고) 이학봉 입니다.  
(허화평) 이학봉! 사령관님은?!  
이학봉 아직 총리님과 면담중이십니다.  
(허화평) 당장 업고 튀어나와! 당장!

### 68. 국무총리 집무실

전두환을 앞에 세워둔 채, 통화 중인 최규하.

최규하 (수화기에 대고) 아직 국방장관 연결이 안 돼요?  
거 참... 어디 간 거야? (끊는다)  
전두환 각하,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최규하 몇 번을 말합니까? 동의를 얻어오라지 않아요, 동의를. 원칙대로 합시다.  
전두환 원칙... (발끈하는 걸 참으며) 원칙 중요하지요. 허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십사 이렇게 제가 반복, 반복 요청 드리는 거 아닙니까.  
최규하 정치가 뭐 길래 법률과 원칙을 넘어섭니까? 보안사령관, 똑바로 들으세요.  
(단호히) 난 그런 정치 할 생각 없습니다.

붉게 상기된 채 노려보는 전두환. 그 기운에 긴장하는 최규하.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답답한 침묵이 흐르는데, 정적을 깨며 울리는 노크소리. 문이 열리며, 경호실장이 전한다.

경호실장 전 장군님. 보안사에서 찾으십니다.  
전두환 (버럭) 누가?!  
경호실장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경호실장이 보내는 눈빛에 뭔가 눈치 채는 전두환.

69. 이동 중인 장태완의 지프

장태완, 김진기와 다시 통화 중이다.

(김진기) 전두환이 지금 총리 공관에 있습니다.

검문 소장한테 나오는 즉시 체포해서 육본으로 이송하라고 했습니다.

장태완 잘하셨습니다. 전두환이 체포하면, 총장님 소재부터 파악하십시오.

헌병감님, 이거 반역입니다! 이 버려지 같은 놈들... 이려고도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진기) 전두환만 체포하면 총장님도 별일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태완 전두환이...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70. 국무총리 집무실 앞

경호실장을 따라 나오는 전두환. 문밖에서 기다리던 이학봉이 급히 귓속말을 전하고,  
전두환의 얼굴이 하얗게 굳는다.

전두환 니미...

71. 한남동 공관촌 진입로

바리게이트로 완전히 차단된 총장 공관 진입로.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총소리와 화염이 터지고  
입구를 막은 해병대가 다른 부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사격을 가하는 탕, 탕탕  
공관 검문소 앞에 장갑차를 대고 해병대와 대치 중인 수경사 병력.  
장태완이 보낸 신윤희 중령(육사 21기, 하나회)의 기동대다.  
엄폐물 뒤에 숨어 지켜보는 신윤희. 앞쪽에서 상황을 관찰한 소대장이 달려온다.

신윤희 해병대 지휘관 교신 안 돼?! 일단 입구 좀 열라고 해!

소대장 저쪽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피아식별이 안 되니까 차단시킨 거 같습니다!

펍펍! 총탄이 날아온다. 화들짝 엎드리는 신윤희와 소대장.

신윤희 씨...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착하는 지프에서 장태완이 박동원 대령과 함께 급히 내리는 게 보인다.  
신윤희에게 성큼성큼 오는 장태완.

장태완 부단장!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신윤희 해병대 쪽에서 진입로를 막아 버렸습니다.

장태완 장갑차로 밀어 버리지 않고 뭐하는 거야?!

신윤희 안쪽에서 헌병단과 교전 중인 상황이라, 아군끼리 사상자가 발생 할 수도 있어서,

장태완 총장님 소재 파악 됐어?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신윤희            그게... 현재 공관에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완            저 안에 있는 놈들 잡아다 총장님 소재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냐? 뭇들 하는 거야?!

신윤희            해병대 최초보고는 헌병대가 공관을 습격해 총장님을 납치했다고 하는데,  
소대장            헌병단 애긴 다릅니다. 공관이 습격당해 지원 나온 거라고...  
장태완            헌병감실에서 공관이 습격당할 걸 이제 알았는데,  
                    헌병단이 그전에 어떻게 알고 왔대?

신윤희            그게...  
장태완            저 것들이 총장님 납치하러 왔다 해병대한테 고립된 거 아냐?  
신윤희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원            (서둘러 다가와) 장군님, 육본에서 호출입니다.

급히 지프로 돌아가 가는 장태완. 눈치를 보며 그 뒤를 따르는 신윤희.

장태완            (카폰을 받아) 수경사령관입니다!  
윤성민            나 참모차장인데, 보안사령관을 체포하라 그랬어요?  
장태완            차장님, 전두환 소장이 이 사건의 주동잡니다.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저지르지 모릅니다.  
윤성민            보안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할 수 있어요.  
장태완            그 계엄사령관을 보안사령관이 불법으로 연행해 갔다니깐요!  
윤성민            아직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잖아요.  
장태완            차장님, 전두환이 그 자가 나와 정병주 사령관, 김진기 헌병감을 만나자고 불러내고선,  
                    그 시각에 총장님을 납치해 갔다 이겁니다. 전부 계획적인 거 예요!  
                    하나회가 이 일에 개입돼 있는 게 분명하고요.

신윤희            (통화하는 장태완의 내용을 곁에서 듣고 있다)  
장태완            그 놈들을 지금 당장 전부 체포해서 총장님을 빼내야 합니다.  
                    그자들은 반란군들입니다!

윤성민            그거는 좀 지나친... 일단 장 장군, 일을 너무 크게 벌리진 마세요.  
                    내가 상황을 알아 볼 테니까.

장태완            차장님... (갑갑한 한숨) 일을 벌 린 건 제가 아닙니다.

### 72. 국무총리 공관 검문소

이학봉이 운전하는 지프 차량이 입구 정문소를 향해 속도를 줄이며 진입한다.  
바짝 긴장한 표정의 이학봉. 뒷좌석의 전두환 역시 날카로운 눈빛으로 검문소 안을 주시하는데,  
다가오는 차량을 보며 전화기를 집어드는 구정길 초소장의 모습이 보이고,  
총을 맨 위병이 차량 앞을 막아 세운다.

위병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평소보다 많은 위병들이 나와 있고, 슬그머니 차량 주위를 에워싼다.  
검문소 창 너머로 지켜보며 통화 중인 구정길.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구정길 (수화기에) 지금 보안사령관 차량을 잡아냈습니다.  
(김진기) 좋아, 지금 즉시 무장해제 시키고 체포 해.  
구정길 예, 알겠습니다.

무전기를 들어 지시하는 구정길.

구정길 차량에 있는 인원, 전원 무장해제 시키고 체포한다.  
위병 (무전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학봉에게) 전원 잠시 하차해 주십시오.  
이학봉 뭐하는 거야 지금? 누가 타고 계신지 알아?  
위병 (단호히) 하차해 주십시오.

실랑이를 벌이는 이학봉과 위병.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구정길인데,  
다시 전화가 올린다.

구정길 통신보안! 총리공관 검문소장 구정길입니다.  
(윤성민) 나 참모차장인데, 거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구정길 보안사령관 차량을 잡아냈습니다. 지금 체포하려고 합니다.  
(윤성민) 아냐. 체포까진 하지 말고 대기만 시켜.  
구정길 예? 헌병감님께서 직접...  
(윤성민) 어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헌병감한테 얘기 할 거니까.

그리곤 끊어지는 전화. 난감한 구정길. 갈등하다,

구정길 (무전기에) 잠시 대기! (다시 전화를 들어) 헌병감님 연결해.

그런 구정길의 모습을 차 안에서 전두환이 지켜보고 있다. 힐끗힐끗 전두환의 차 쪽을 보는 구정길.  
그 상황을 유심히 주시하는 전두환... 그러다 어느 순간,

전두환 (작은 소리로) 밟아.  
이학봉 예?  
전두환 이빠이 밟아!

순간, 확- 급출발을 하는 지프. 막고 있던 위병을 밀치며 앞으로 치고 나간다.  
그걸 보곤 놀라서 뛰쳐나오는 구정길인데,

구정길 야, 뭐해! 막아, 막아!

당황한 위병들이 달려가 보지만, 팡! 그대로 차단 봉을 부수고 맹렬하게 달려 나가는 지프.  
쫓아 나온 군인들의 총격이 가해지지만, 무사히 도로로 도망치는 전두환의 차량이다.

지프 안. 몸을 숙였다 일어서는 전두환. 뒤를 보곤 안심한다.

이학봉 (다급히) 괜찮으십니까?

전두환 30경비단으로 곧장. 중간에 막는 놈들 썩 밀어버려.

이학봉 알겠습니다!

### 73. 한남동 공관촌 진입로

지프 안, 통화 중인 장태완. 열이 받을 대로 받았다.

장태완 놓쳐... (화를 삭이며) 그러 길래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이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니까!

(윤성민) 자네가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이 사람아! 30경비단 자네 관할 아니야?  
왜 거기 전두환이랑 노태우랑, 하나회 인간들 전부 모여 있는 건데?

장태완 (당황) 뭐라고요?

(윤성민) 장 장군 얘기대로 그 자들이 일을 벌인 건 나도 알겠으니까,  
일단 장 장군도 예하부대부터 점검하고, 다시 현황보고 하세요.

툭- 끊어지는 전화. '이런 개...' 카폰을 집어던지려다 애써 참는 장태완.

장태완 장세동이...

분해서 치를 떠는 장태완.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박동원과 신윤희.

장태완 (박동원에게) 장세동, 김진영, 이 자들 당장 신변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해.  
지금 당장 수경사로 간다.

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완 (신윤희에게) 신중령.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장갑차로 밀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헌병단들 전부 체포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총장님 소재 파악해서 보고해.

신윤희 예, 알겠습니다!

장태완 이제부터 자기가 여기 책임자니까, 저항하는 놈들은 적군으로 간주하고 사살한다.

신윤희 (긴장한) 예...

지시하고는 서둘러 지프에 올라타고 출발하는 장태완.

신중령, 혼란스런 시선으로 지프가 멀어지는 걸 보는데,

(무전기) 신중령! 나 33경비단 김진영이다! 뒤쪽에 보이는 차량으로 와라. 지금 당장!

돌아보는 신윤희. 뒤쪽에서 상향등을 깜박이는 지프 차량 보인다.

신윤희가 지프로 다가가는데, 김진영이 급히 내려 다가온다.

김진영            잘 들어. 총장님은 우리 쪽에서 연행했다.  
신윤희            우리 쪽이요?  
김진영            총장님은 시해 사건에 연류 된 정황이 포착돼서 체포당한 거야.  
                      저 안에 갇혀 있는 병력들, 임무 수행 중에 고립된 거니까, 책임지고 데리고 나와야 돼.  
신윤희            형님, 이게 지금...  
김진영            전두환 장군님이라 다들 30경비단에서 모여 결정하고 지시한 일이야.  
신윤희            30경비단이면 수경사 관할인데 왜...?  
김진영            그게 무슨 뜻이겠어? 이미 다 우리 쪽으로 넘어왔단 얘기가.  
                      오늘 밤 다들 뜻을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무조건 동참하는 거야.

신윤희가 주저하자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김진영.

김진영            내 말 잘 들어. 전두환 장군 절대 자기 사람 안 버리는 거 알지?  
                      이 기회에 너도 전 장군님 사람 되는 거야.  
신윤희            .....

#### 74. 몽타주, 진돗개 발령

- 30경비단 작전실. 장세동과 노태우가 뭔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 위로,

(윤성민)           이번 사건의 주모자로 보이는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측근들은 현재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여 있는 걸로 확인되며, 상부의 명령에 일체 응답하지 않고 있다.

장세동과 노태우에게서 화면 빠지면, 상황실에 모여 있는 반란군 장군들의 모습이 한 샷에 보인다.

- 육군본부 B-2 병커로 통하는 튼튼한 콘크리트 입구. 진압군 측 장성들의 지프가 속속 도착한다.

- 병커 내부. 전쟁을 대비한 콘크리트 방벽 속에 각종 통신 설비가 즐비하다.  
진압군 장군들과 참모장등이 테이블에 모여 있고, 김진기 헌병감의 모습도 보인다.

(윤성민)           이에 우리는 이것을 보안사 측의 주도로 이루어진 군사반란행위로 규정하고,  
                      전시작전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 지휘본부를 육군본부 B-2 병커로 이동한다.

- 보안사 정보실. 보안사 통신병들이 육본의 통신상황을 감청하고 있다.

(윤성민)           아울러 지금 즉시 전군에 진돗개 1호를 발령한다! 지금 즉시 진돗개 1호를 발령한다!

진돗개 발령 소식을 접하는 보안사 통신병들의 얼굴이 상기된다.

75.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따르릉- 직통 전화가 울리자 재빨리 받는 장세동. 뭔가를 듣고는 표정이 굳는다.

황영시            뭐야? 뭔데 그래?!

장세동            진돗개 1호가... 발령됐답니다.

황영시            쌍...

백운택            진돗개 떴다... 진돗개...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는 분위기. 유학성은 양주병을 집더니 커피 잔에 들이 붓는다.

차규현            전두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벌컥- 문이 열리며, 전두환이 거침없이 들어선다.

전두환            놓고 있을까봐 그러니까.

황영시            이봐. 전소장. 어떻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전두환            사태가 왜요? 뭐 이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닙니까?

황영시            뭐? 그걸 말이라고.

유학성            대통령 재가는? 물 건너 간 거야?

전두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어이, 세동이. 국방장관, 소재 파악됐어?

장세동            예, 아직...

차규현            일단 여기 다 치워. 여기 모여 있다 우리 다 반역죄야! 반역죄!

전두환            지금부터 짝 다 동원해서 국방장관 찾아내.

차규현            내 말 안 들려?!

전두환            (버럭)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전두환의 서릿발에 다들 놀라 멈칫하고,

전두환            반역은 누가 반역이야?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야, 혁명!

                      고작 하룻밤을 못 참고 반역이란 소릴 입에 담습니까? 예?!

차규현            (시선 피하는)

전두환            그렇게 반역자 되고 싶어?! 김재규 옆에 다들 방 하나 씩들 잡아줘?! 어?!

전두환의 불같은 일갈에 다들 기가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한다.

전두환            국방장관 찾아! 빨리!!

불호령에 부리나케 일어나 달려 나가는 장세동과 부관들.

‘씨발...’ 씩씩거리며 욕지기를 내뿜는 전두환. 동요하던 장군들을 일시에 제압해 버린다.

76. 용산 한미연합사 사령관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한미연합사령관 위کم과 미 대사 글라이스틴이 딱한 표정으로 정면의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파자마 위에 코트를 걸치고 앉아 불안하게 커피를 홀짝이는 국방장관 노재현이다.

글라이스틴      국방부로 가야하지, 왜 여기로 옵니까? 내정개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재현      정말 쿠데타가 나면... 북이 도발이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위کم      만약 북에서 움직인다면, 더더군다나 국방장관께서 여기 이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노재현      (할 말 없는).....

77. 필동 수경사 사령관실

랑!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장태완. 자신의 책상 서랍을 뒤지며 뭔가를 찾는다.  
며칠 전 김진기 헌병감이 주고 간 군내 하나회 명단을 정리한 서류이다.  
서류를 펼쳐보는 장태완. 서류를 넘길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회 명단들의 얼굴...  
예상보다 많은 숫자에 불길함을 느끼는 장태완인데,

박동원      장세동, 김진영, 둘 다 30경비단에 합류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랑! 책상을 내리치는 장태완. 열이 받아 짹짹거린다.

장태완      전화 연결해.  
박동원      예? 어디로...?

78.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필동 수경사 사령관실 교차

허삼수가 장군들에게 보고한다.

허삼수      십구 시 까지는 사저에 계신 게 확인이 됐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사라지셨답니다.  
보안사 채널 다 돌려봐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영시      이 난리 통에 소재 파악이 안 돼? 뭐하는 인간이야 도대체?!  
차규현      쳇,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는데, 국방장관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니.

한마디 씩 하면서도 슬쩍 전두환의 눈치를 살피는 장군들. '이제 어쩔 거냐?'는 눈초리들인데,

장세동      저... 여기 말입니다... 누가 좀... 받아 주셔야겠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바짝 긴장해 전화기를 들고 있는 장세동이다.

노태우      왜? 누군데?  
장세동      장태완 수경사령관입니다...

그 말에 일순 정지되는 상황실. 아무도 선뜻 나서서 전화기를 받지 못하고 서로 눈치들을 보는데, '장세동이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니가 그러고도 군인이야 이 개자식아!'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호통 소리. 고참 황영시가 참다못해 슬그머니 다가서며 수화기를 받는다.

황영시           어이, 장태완이. 왜 흥분을 하고 그러나. 나 황영시아.  
장태완           형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거기 제 관할 부입니다.  
황영시           알지 이 사람아.  
장태완           근데 왜 다들 거기 모여 있는 거냐고? 남의 부대 모여서 대체 뭘 개작당들을 하는 거냐고!  
황영시           개작당이라니 이 사람이... 이봐, 자네도 일단 이리 와서 얘기를 좀 들어봐.  
전두환 소장 얘기가 일리가...  
장태완           전두환 개새끼...! (한숨) 형님... 좋은 말로 할 때 총장님 무사히 복귀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각자 부대로 복귀하세요.  
황영시           이 사람 뭘 그리 성을 내고 그러나. 흥분할 일이 아니고 일단 우리랑...  
장태완           장세동! 김진영이! 두 새끼 중 살고 싶은 놈은 튀어 와서 전화 받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시늉의 황영시. 전화기를 유학성에게 넘긴다.

유학성           (수화기에) 장 장군. 좀 진정하지 그래.  
장태완           넌 또 누구야?  
유학성           유학성 준장이야. 내 자네 뜻은 알겠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도 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 아닌가.  
장태완           나라 걱정? 뚫린 입이라고 말은 참... 나라를 걱정하는 양반들이 모반을 작당하고,  
나라 지키라고 준 총으로 직속상관을 납치하나? 당나라 군대야?  
옛날 같았음 당신들은 삼대를 멸하고 씨를 말렸어!  
유학성           씨를 말... 이 사람이!  
장태완           됐고, 니들 전부 거기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내 지금 당장 탱크 몰고 쳐들어가서 대갈통을 싹 다 날려 버릴 라니까!

광! 전화기를 끊어버리는 장태완. 똥 씹은 표정으로 전화를 넘기는 유학성.

노태우           뭐랍니까?  
유학성           탱크 몰고 와서 머리통을 날린 댜다.

그 말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지는 분위기. 다들 안색들이 안 좋은데,  
갑자기 꺄꺄꺄 웃는 누군가. 전두환이다.

전두환           하이... 미친 놈.  
황영시           지금 웃음이 나와? 수경사 예하부대 출동 걸면 여기 오는데 한 시간이야!  
한 시간 안에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여기 전부 납골당 되게 생겼다고!  
전두환           어이, 희도야.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박희도           예, 사령관님.  
전두환           1공수. 니가 좀 움직여줘야겠다.  
일동           !!!  
유학성           전장군... 공수 부대를 움직이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정총장 연행이랑은 차원이 달라. 그건...  
전두환           전쟁입니다.

드디어 나오고 만 단어에 사색이 되는 얼굴들.

전두환           장태완이가 땡크 몰고 온다잖습니까. 장태완이 온다면 오는 인간입니다.  
                  그럼 이대로 탱크에 대갈뼉 깨지길 기다릴라고요. 다들 정신들 차리십쇼.  
                  총리 공관에 총소리 난 순간부터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탱크에 깔려 죽던가, 우리 병력 전부 끌어다 치고받던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일동           .....  
전두환           (반응들이 없자) 태우야. 백마부대.  
노태우           (한숨) 그래도 전방은...  
전두환           여기가 최전방 아니야? 오늘밤 서울 뺏기면 어차피 우린 다 죽는 거야.  
유학성           어이, 그래도 전방부대를 빼오는 건... 그러다 만에 하나 북에서,  
전두환           김일성이 오늘밤 절대 안 내려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목소리 올라가며) 태우야.  
노태우           (마지못해) 백마부대... 29, 30 연대 출동시키겠습니다.

다들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 더 이상 나서질 못하고, 기선을 잡은 전두환, 치고 나간다.

전두환           (벌떡 일어나) 일어나십시오 다들!  
일동           (쳐다보면)  
전두환           전부 대통령에게 갑시다. 가서, 지금 이게 나 전두환이 혼자 설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수 애국 군인들의 결단이란 걸, 다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쉽게 나서질 못하는 장군들. 여기서 정말 더 가야되나 싶은 표정들인데,

황영시           쳇... 막말로 그게 무슨 대통령이라고.  
전두환           그 양반이야 내일 청와대 입성할 생각에 지도 한 번 뺨대 보는 건데,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아닙니까.  
노태우           (일어서더니) 전 장군 말이 맞습니다. 어차피 사인만 받아내면 우리가 합법입니다.

### 79. 진압군 작전회의 몽타주: 수경사 상황실과 육군본부 B2병커 교차 / 밤

- 수경사 상황실. 수경사 참모들과 함께 회의 중인 장태완.  
박동원이 작전지도에 서울에 인접한 주변 부대 위치를 화살표로 표시한다.  
김포의 1공수 여단과 남한산성의 3공수 여단, 인천의 9공수 여단...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이후 대사에 따라, 그래픽 이미지가 화살표로 부대 이동을 표현한다.)

(박동원) 1공수, 3공수, 9공수.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공수부대들입니다.  
(빨간 표시를 그으며) 이중에 1공수와 3공수는 하나회 소속입니다.

서울 쪽으로 화살표가 향하는 공수 부대들의 이미지.

(장태완) 우린 9공수를 움직이면서...  
최대한 빨리 양주에 있는 수도화기계화 사단을 서울로 진입시킨다.

장태완의 말에 따라 수도기계화사단의 더 큰 화살표가 서울로 들어오는 1, 3공수의 화살표를 밀쳐낸다.

장태완 오늘 밤 누가 먼저 서울로 전력 부대를 진입시키느냐가 이 싸움의 승부처가 된다.

- 육본 병커. 윤성민 차장을 중심에 두고 회의 중인 10여 명의 진압군 장군들과 참모들.

장군1 그나마 다행인 건 수도권 내 최고명령권자들이 전부 이쪽입니다.

윤성민 (끄덕이면)

장군2 그래서 말인데, 누가 봐도 우리가 유리하니 이쪽에서 먼저 대화를 유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저들을 지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수그리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수경사 상황실. 육본 병커 상황과 교차되며... 불안한 듯 서성이며 읊조리는 장태완.

장태완 실제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부대를 통솔하는 연대장 급은 하나회가 많다.  
부대장악해서 출동하면 방법이 없어.  
박대령, 나머지 예하부대 지휘관들 소재 파악해서 전원 각 부대에 집결시켜.  
박동원 예, 알겠습니다.

### 80.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장군들로 들어찼던 작전실 내부가 행하게 비어져 있고,  
전두환으로부터 특명을 받은 노태우와 박희도 1공수 여단장만이 남겨져 있다.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노려보는 박희도. 섯 수화기를 들기 망설이는데,

노태우 내가 걸어 줘?  
박희도 (비장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든다) 나 여단장인데...  
지금 즉시 1공수, 전원 무장 상태로 출동시킨다.  
출동 목표는... 서울 육군본부... B-2 병커다.

81. 송파 특전사 사령관실, 필동 수경사 사령관실 교차

빠르게 복도를 걸어가는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그 뒤를 따르는 부관 김오랑 소령.

정병주            1공수랑 3공수가 연락이 안 된다고?  
김오랑            네.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정병주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문을 열고 사령관실로 들어서는 정병주. 때마침 전화기를 들고 있던 비서관이,

비서관            장태완 사령관님 전화입니다.

Cut to. 자신의 책상에 앉아 통화 중인 정병주.

정병주            (수화기에) 1공수랑 3공수가 연락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최세창이랑 박희도 개들은 내 자식 같은 놈들입니다.  
하나회 쪽이라고 해도 날 봐서 지들도 선불리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장태완)        장군님, 총장님을 납치한 게 바로 그 하나회 놈들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9공수를 30경비단으로 출동시켜야 합니다!  
정병주            9공수는 지금 훈련 중일 텐데.  
장태완            지금 당장 불러들이십시오. 예하부대 꼭 잡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저것들 당장 밀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밤 무슨 수를 쓸지 모릅니다.  
정병주            알겠습니다. 내 바로 조취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정병주. 심난한 얼굴. 잠시 고민하다 인터폰을 들고,

정병주            1공수랑 3공수 아직 연락 안 돼?

벌컥- 문이 열리며, 김오랑 뛰어 들어온다.

김오랑            사령관님... 1공수 여단이 서울로 출동 중입니다!  
정병주            (놀라) 뭐? 누구 명령으로?!

82. 경인 간 지방도로

길에 버려진 나무꺾꽂이를 씹어 먹듯 부수는 욕중한 바퀴.  
1공수 부대 트럭 수십 대와 지프차, 장갑차 등이 사나운 엔진소리를 뿌리며 도로를 달린다.  
선두 지휘차량의 지프에 1공수 참모장 이대령과 부관이 탑승 중인데,  
반복해서 무전이 들어오고 있다.

(김오랑)        참모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당장 부대로 복귀하십시오!  
특전사령관님의 명령입니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이대령 (괴로운) 여단장님은 출동하라 하고, 사령관님은 출동 하지 말라고...  
대체 서울에 뭘 일이 난 건데!  
부관 끝까요?  
이대령 ...놔 뒀. 받진 말고.

‘서울 25KM’ 이정표를 지나치는 1공수 부대 행렬.

### 83. 육군본부 B2병커

(윤성민) 1공수가 올라온다고?!

통화 중인 윤성민. 그 소리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웅성거리는 장군들.

윤성민 (수화기에) 어디까지 왔어? 알았어.  
(다급히 끊고는) 아니 특전 사령관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김진기 저쪽 지휘 받는 여단급에서 부하들 설득해서 출동했을 겁니다.  
특전사, 수경사 다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장군1 1공수는 김폰데, 한 시간 반이면 오잖아요. 여기는 병력도 없는데,  
김진기 지금 당장 인천의 9공수를 출동시켜야 합니다!

### 84. 필동 수경사 상황실, 용인 3군사령관실 교차

장태완과 이건영 3군 야전 사령관이 다급히 통화 중이다.

이건영 아니 그 자들은 뭘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장태완 김재규랑 엮어서 총장님을, 지 직속상관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영 아니 자들이 뭘데? 국방장관은 뭐하고,  
장태완 정상적인 절차면, 그 놈들이 공관에 총질을 해뒀겠습니까? 명백한 반란 행위입니다.  
이건영 나쁜 새끼들...  
장태완 사령관님. 일단 1공수를 막으려면, 수도기계화사단, 26사단을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이건영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장태완 부탁드립니다, 사령관님.

전화를 끊는 장태완과 동시에,

박동원 1공수는 서울로 진입 직전입니다. 기계화사단이 온다 해도 1공수가 더 빠릅니다.  
1공수를 어떻게든 지체 시켜야 합니다.

고심하는 장태완. 작전지도 앞에 가 선다. 1공수의 이동 예상 경로를 손으로 따라가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장태완            다리... 수경사 관할 한강다리를 봉쇄한다. 전부!

### 85. 제2한강교(현 양화대교) 앞

이동 중인 지프 안. 망원경으로 전방을 주시하는 1공수 참모장 이대령.

이대령            (의아한) 뭐야 저거?

지휘차량의 무전이 들어왔는지, 각 차량들의 전령들이 수신호를 하자 후위 병력들이 일제히 멈춰 선다.  
이대령의 망원경 시점. 제2한강교 위로 시민들의 차량이 밀려서 가득 들어차 있고,  
다리 건너, 북단 쪽 입구에 군인들의 바리케이드가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

(박희도)            다리를 막았다고?!

### 86.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전화로 상황을 전달받는 박희도. 곁에서 듣고 있는 노태우.

노태우            그냥 밀고 나가라 그래!

박희도            그게... 민간차량들로 앞이 막혀 있어서...

노태우            쌓... 장태완이...

박희도            행주대교! 행주대교는 수경사 관할이 아닙니다!

노태우            오케이! 행주대교로 돌려!

### 87. 필동 수경사 상황실

작전지도 위. 서울 시내 한강 다리에 전부 X 표시가 돼 있는데, 행주대교만 빠져 있다.  
그 위로 통화 중인 장태완의 다급한 목소리.

(장태완)            행주대교는 30사단 관할 아닙니까?  
                         행주대교만 막아주시면 반란군 놈들 진입을 못하니깐요.

장태완이 30사단 박희모 사단장과 전화통을 붙잡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동원 대령.

### 88. 종로 보안사 정보실

감청기가 작동되고 있는 통신장비들. 장태완과 30사단장의 통화 내용이 감청되고 있고,

(장태완)            사단장님께서만 그리 해 주시면, 우리 쪽이 확실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박희모)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직접 헤드폰을 끼고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허화평. 다급히 소리친다.

허화평           (부관들에게) 행주대교! 행주대교 막히면 끝이야!  
1공수 못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 거라고!

#### 89. 고양 30사단 사단장실

책상에 앉은 30사단장 박희모 장군. 부관이 보고 중이다.

부관            행주 대교 양방향 모두 차단 시켰습니다.  
박희모          (끄덕이면)

갑자기 따르릉- 울리는 사단장 직통 전화. 의아하게 보다 받아드는 박희모인데,

박희모          (수화기에) 30사단입니다.

허화평          박희모 장군님. 저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입니다.  
장군님께서 방금 장태완 수경사령관과 통화 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박희모          뭐? 뭐야 니들?!

허화평          현재 군내 모든 정보는 저희 쪽에서 쥐고 있단 뜻 아니겠습니까?

박희모          니들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허화평          사단장님. 이미 대체는 기울었습니다.  
9사단이 이미 서울로 오는 중이고, 3공수도 출동 대기 중입니다.  
그 쪽에서 행주 대교를 막아봤자 시간을 끄는 정도지 결과는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박희모          9사단은 전방 부대 아냐? 전방 부대를 빼와?

허화평          다수의 장군들이 그 만큼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동참해 있단 뜻입니다.

박희모          .....

허화평          장군님.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게, 현 시점에서 그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1공수, 행주대교를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박희모          .....

허화평          사단장님 결정. 저희가 다 듣고 있습니다.

무참한 심정으로 그저 듣고만 있는 박희모 30사단장.

#### 90. 국무총리 공관 검문소 앞

트럭에서 쏟아져 나오는 보안사 병력들.

총리 공관 검문초소 안. 위병들이 총을 겨눈 보안사 병력들에게 진압되고 있다.

보안사지휘관    이제부터 총리 공관 경비는 보안사에서 담당한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구정길 (앞으로 나서며) 누구 지시요?  
보안사지휘관 (구정길의 면상에 총을 겨눈다) 거역하면 발포한다.  
보안사군인 (총을 겨누며) 전부 손들어 이 새끼들아!

더 이상 나서지 못하는 구정길 중령. 보안사 지휘관이 무전을 전달하면,  
검문 초소 앞에 대기 중이던 여러 대의 차량들이 공관으로 진입한다.  
전두환과 함께 온 반란 장군들이 타고 온 지프 차량들이다.

### 91. 국무총리 집무실

최규하 대통령과 국무총리 신현확이 대면 중이다.

신현확 잘 하셨습니다. 이 시각에 와서 집요하게 재가해달라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상기된 얼굴로 급히 들어선다.

비서 전두환 장군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확-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전두환과 장군들이 들어온다.  
놀라서 쳐다보는 최규하와 신현확. 그 앞에 위세를 드러내듯 일 열로 도열하는 전두환과 장군들.

전두환 전원 차렷! 대통령 각하께 경례!  
장군들 (과도하게 큰 소리) 충성!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들. 느닷없는 상황에 기가 질리는 최규하와 신현확.

최규하 (애써 침착) 오늘 밤 전장군 바깥입니다.  
전두환 각하, 이렇게 장군들이 함께 온 이유는 이번 일이 저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우리 군 모두의 일치단결된 뜻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최규하 왜들 이러시오. 내 여기 총리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 뜻은 분명합니다.  
국방장관 동의를 있으면 승인해드리겠소.

황영시 (한 발 나서며) 1군단장 황영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하! 지금 자칫 내전까지 벌어질 급박한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실 때가 아닙니다.

‘내전’이란 말에 서로를 보는 최규하와 신현확.

신현확 내전이라니?

### 92.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박희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 중인 노태우.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노태우 (수화기에) 출동 준비 완료됐나?  
(부사단장) 네, 그렇습니다. 29연대 전원 도열 완료하고 대기 중입니다.  
노태우 도착지는 서울 중앙청 앞이다. 바로 출발해.  
(부사단장) 사단장님. 근데... 저희 부대가 후방으로 이동하면 유사시 전방 방어는...  
노태우 오늘 밤. 전쟁이 나면 서울에서 난다. 전부 이동 시켜.

### 93. 행주대교 강북검문소 앞

끼이익-!! 행주대교 북쪽 입구에 급히 멈춰서는 지프. 장태완과 박동원이 내리는데,  
차들이 평소처럼 통행 중이고, 아직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지 않다.  
검문소 초소로 황급히 달려가는 박동원.

박동원 (초소장에게) 수경사에서 나왔는데, 왜 아직 통제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초소장 대기만 하고 있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동원 30사단장님과 연락이 다 된 겁니다. 빨리 통제하세요, 빨리!  
초소장 저희도 사단장님으로부터 직접 연락 받은 겁니다.  
박동원 !!!

### 94. 국무총리 집무실

이전 상황과 동일.

전두환 결재해주십시오. 육본에서 지금 상황을 오해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하께서 사인만 해 주시면 모든 상황이 정리됩니다.  
아니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신현확 이보세요. 국방장관 동의를 필요하다지 않습니까?  
황영시 아 글썄 국방장관이 어디 갔는지 모른단 말 아닙니까?  
이리 시급한 상황에 군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장군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리 말귀를 못 알아 처먹고 말이야!  
신현확 이 사람이... 지금 국가원수를 협박하는 거야!  
전두환 장군님! 이게 무슨 태도니까! 우리가 깡뽕니까?!  
(최규하에게 넋죽 허리를 숙이며) 각하 죄송합니다.  
최규하 내 의사는 분명히 했으니 더 말할 것 없어요. 다들 돌아가세요.

꿈틀거리는 전두환의 얼굴. 분노를 애써 참는 표정이 살벌하다.  
다른 장군들도 난감한 얼굴들이다.

### 95. 행주대교 검문소 내부, 30사단 사단장실 교차

행주대교 검문소 초소장이 내부 통신선으로 통화 중이다.

초소장 (수화기에) 사단장님. 장태완 수령사령관께서 검문소에 와 계신데...

장태완 (황급히 수화기 뺏어들며) 아니 왜 빨리 통제하지 않으십니까?!

박희모 사령관님. 상황이... 장곡 검문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대규모 병력이 서울로 진입중이라고 합니다.

장태완 장곡이면...?

박희모 9사단... 백마부대입니다.

장태완 이 미친놈들이 전방 병력을 빼온답니까?!

박희모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군님.

장태완 (한숨)...그러니까 더더욱 1공수 진입부터 막아야지요.

박희모 우리 쪽에서 진입을 차단하다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내전 아닙니까?  
저는 부하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장태완 사단장님. 이대로 물려서면 서울은 저 놈들한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박희모 죄송합니다.

장태완 (전화가 끊기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충격과 분노로 말을 못하는 장태완. 숨을 고르며 침착하려 애쓰는데,

박동원 사령관님...

장태완 전방 부대를 빼와...?

박동원 .....

장태완 이놈들은 이제 복귀를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자, 국가반역자들이다...  
이들과 동조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박동원에게) 수경사 예하부대에 똑똑히 전달해.

#### 96.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부관을 따라 뛰어 들어오는 장세동.  
무전기로 전달되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동원) ...금일 17시 경 육군참모총장을 납치하고 국가반란행위를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박희도... 반란 주동자들과  
이들과 동조한 수경사령부 장세동, 김진영, 조흥... 보안사령부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호명된 자들은 이 시각부로 발견 즉시 사살할 것을 명령한다! 다시 한 번 반복한다...  
이 무전을 청취하는 수도경비사령부 관할 전 부대원들에게 전달한다. 누구든지...

무전소리를 들은 장세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작전실 대원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장세동의 눈치를 살피는데,

장세동 (황급히 무전기를 잡고) 1공수! 1공수 어디쯤 갔어?!



97. 행주대교 인근 옥상, 남단 지점 교차

- 멀리 행주대교가 보이는 가운데, 강변도로를 따라 1공수의 부대 행렬이 접근 중이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 안.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보안사 요원이 무전을 받는다.

보안사요원      (무전기에) 행주대교 근방 접근 중입니다.

- 부아양! 경광등을 켜 지프가 빠르게 질주하다 행주대교 남단 입구 정중앙을 막으며 멈춰 선다.  
차에서 내리는 장태완이 지프 앞에 선다.  
결연한 얼굴로 멀리 다가오는 1공수 불빛을 노려보는 장태완. 혼자서라도 막아볼 심산이다.

98. 육군본부 B2병거

육본부관1이 보고한다.

육본부관      행주대교 관할인 30사단 박희모 장군이 연락을 시도하는데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민      9공수랑 기계화사단은?  
육본부관      9공수는 훈련나간 차량이 미복귀 해서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고,  
기계화사단 역시 아직 출동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장군1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도 자리를 옮겨야하지 않겠습니까?  
김진기      어떻게든 지킬 생각을 해야지요. 피할 생각부터 하십니까?  
장군1      피하는 게 아니라, 재정비를 하자는 거지요.  
김진기      여기가 육본인데, 심장을 내주고 어디 가서 재정비를 합니까?  
윤성민      (고심하다 벌떡 일어선다) 1공수 지휘관, 다이렉트로 연결 할 수 있어?!  
부관      연결은 가능한데, 그 쪽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민      상관없어. 연결해 일단!

99. 행주대교 남단 입구, 행주대교 북단 교차

- 1공수 참모장 이대령의 망원경 시점. 멀리 열려 있는 행주대교가 시야에 들어온다.

이대령      (망원경을 보며) 행주대교 뚫려 있는데?  
(뭔가를 발견하고) 뭐야 저거?

망원경 시점으로, 도로 중앙을 막은 지프 한 대와 그 앞의 장태완이 보인다.  
이때 차량 내부 무전이 들어오고,

(윤성민)      1공수. 나 육군참모차장이다! 1공수 지휘관 듣고 있나?!

이대령      (쳐다보지만 받질 않는다)

(윤성민)      잘 들어라. 너희 1공수가 다리를 건너면 아군끼리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우리끼리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자칫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당장 부대 복귀하라!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불응할 시에는 명령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시켜 최고형에 처하겠다. 당장 복귀하라!  
이것은 명백한 군사반란행위다! 반역죄는 사형이야!

황급히 무전을 꺼버리는 이대령. 서로를 보는 이대령과 변소령. 눈빛들이 흔들린다.

변소령            군법회의에 넘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대령            직속상관이 출동하라잖아!  
변소령            그 직속상관의 상관이 복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대령            .....

다시 무전기를 켜는 변소령인데, 지지직- 거리는 무전소리에 이어,

(정병주)            1공수 지휘관. 듣고 있나? 나 특전사령관이야.  
이대령            (무전기를 쳐다본다)  
(정병주)            지금 복귀하면 귀관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도록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이쯤에서 그만.. 복귀해라. 1공수가 내 명령에 불복하고 서울로 진입하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령관으로써 마지막 부탁이다. 부대 복귀해라.  
변소령            참모장님...  
이대령            .....(들리지 않는 소리, 입모양만 ‘씨바 증말’)

- 행주대교 복단 초입. 점점 다가오는 거대한 행렬을 막고 선 지프. 그 앞의 장태완.  
M16을 든 박동원이 운전석에서 내려 앞을 겨냥하는데...  
원가를 본 박동원이 총기에서 얼굴을 들어 쳐다본다.

- 검문소 초병들이 의아한 얼굴로 나와 남단 입구를 지켜본다. 호송트럭에서 내린 공수부대원들이  
장갑차들이 유탄할 수 있게 일반 차량을 막아 세우고, 행주대교 남단 입구까지 도달한 1공수 병력들이  
유탄을 시작한다. 다시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1공수 행렬.

- 상기된 얼굴로 지켜보는 장태완. 옆으로 다가오는 박동원, M16을 어깨에 걸면서

박동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령관님 서 계신 걸 보고서..  
장태완            (저으며) 기적 같은 건 없어. 그래도 어쨌든.. 후우~

긴장이 풀리는 장태완. 멀어지는 1공수의 불빛들을 지켜보며 박동원의 어깨를 잡는다.

### 100. 육군본부 B2병커

(무전소리)            1공수가 행주대교 앞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전소리에 주먹을 불끈 쥐는 윤성민 차장과 안도하는 장군들. 김진기 헌병감도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101. 행주대교 복단, 송파 특전사 사령관실 교차

장태완의 지프가 유턴을 하며 다시 서둘러 출발한다.  
차량 안. 통화 중인 장태완.

장태완 (수화기에) 사령관님. 1공수가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제 9공수를 먼저 서울로 진입시켜야 합니다!  
노태우가 전방 9사단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정병주 내가 지시는 했는데, 9공수 윤희기가...  
눈치가 서울로 공수부대가 들어가는 거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장태완 (답답한) 그 친구는 저 쪽에 포섭된 게 아닌 거가 확실 합니까?

정병주 윤희기는 육사 출신도 아니고, 정신머리 제대로 된 친구야.  
단지 아군끼리 유혈사태가 발생할 까봐 지도 겁나는 거지.

장태완 지금 그럴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발을 빼도록 하는 게 저 놈들이 원하는 방법이라니까.  
저 인간들, 우리 쪽이 이런 상황에 주저할 거라 예상하고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정병주 알았어요, 내가 다시 지시할 테니까. 연락 합시다!

전화를 끊는 장태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장태완 (운전 중인 박동원에게) 차 돌려.

박동원 예?

장태완 9공수로 가자. 가서 설득을 하던 끌고 오던 무조건 데려와야 돼.

급하게 유턴을 하는 지프. 사이렌을 켜고 빠르게 질주해 간다.

102. 통일로 서울진입방향

파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통일로 지방 국도. 어둠 속에서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동 중이다.  
육중한 바퀴들과 거친 엔진음. 공수여단 보다 훨씬 큰 규모인 사단 급의 트럭과 장갑차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장갑차에 그려진 9사단 백마부대 표식이 보인다.

103. 국무총리 공관 앞

공관 건물을 우르르 나오는 전두환과 장군들. 재가를 못 받아 분위기가 살벌한다.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이학봉이 달려와 보고한다.

이학봉 사령관님! 1공수가 행주대교 앞에서 되돌아갔다 합니다.

전두환 뭐? 왜!!

이학봉 현장 지휘관이 육본 측에 설득당한 모양이라고...

전두환 (발끈) 씨발... 그걸 못 막아서! 이런 병신...!

#### 104. 경복궁 30경비단 본부건물 앞

상기된 표정의 박희도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고, 건물 앞에 정차된 지프 뒷좌석에 오른다.  
박희도의 옆에 전두환이 묵묵히 앉아있다.

박희도 사령관님...

전두환 (의외로 차분하게) 희도야.

박희도 예...

전두환 이거 타고 가라.

박희도 .....

전두환 가서. 니가 직접 1공수 끌고 와. 오늘 밤 우리 목숨. 니 손에 달렸다.

박희도 (한숨)

전두환 니가 판단 해. 대신 여기서 접을 거면, 니 손으로 나 죽여라 그냥.

박희도 장군님...

차량 밖. 노태우가 지켜보고 있는데, 전두환이 홀로 지프에서 내리더니 걸어온다.

차량 안. 혼자 남겨진 박희도. 권총을 꺼내더니 탄창을 확인한다.

#### 105. 몽타주, 반란군의 반격

- 확!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지프.

비장한 표정으로 선탑에 앉은 박희도.

박희도 (운전병에게) 더 빨라. 빨으라고!

- 보안사 정보실. 별격- 문이 열리며 들어서는 노태우가 보안사 요원들을 향해 소리친다.

노태우 지금부터 혈연, 지연, 학연! 안 되면 악연이라도, 연이란 연은 전부 동원한다!

어떻게 해서든 저들 출동을 늦춰! 전쟁이다 전쟁!

긴장한 얼굴로 급하게 통신망을 연결하는 보안사 통신 요원들.

초조하게 지켜보는 하나회 장군들과 보좌관들.

연결된 통신병이 외치면, 장군들이 한 명씩 달라붙어 통화를 하는 모습들이다.

- 수도기계화부대. 전투복 차림의 지휘관이 집무실을 나서려는데,

따르릉! 전화기가 뒤에서 요란하게 울린다. 돌아보는 지휘관.

- 연병장. 전차와 장갑차등이 출동을 위해 도열해 있는데,

지프차에 탑승한 지휘관이 난처한 얼굴로 통화 중인 모습이 보인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저쪽의 다른 지프와 장갑차 지휘대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괴로운 얼굴로 누군가와 통신 중인 지휘관들의 모습.

### 106. 김포 1공수여단 연병장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행렬이 길게 이어지며 연병장으로 들어선다. 1공수 행렬이 복귀 중인데,  
사이렌을 매단 지프 한 대가 맹렬히 달려와 선두 지휘차량 앞을 막아 세운다.  
의아하게 보는 지휘차량 안의 이대령과 공수 부관인데, 막아선 지프에서 박희도가 내려 빠르게 다가온다.  
차에서 내려 경례를 올리는 이대령과 공수 부관.

박희도            뭐하는 거야 지금? 부대 안 돌려?  
이대령            .....  
박희도            (살벌한) 명령을 불복한다는 건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 손에 쥐는 박희도.

박희도            다시 한 번 명령한다. 부대 다시 출동한다.  
이대령            사령관님과 연대장님의 명령이 다른데, 어떤 명령을 따라도 불복 아닙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박희도            (다가와 코앞에 마주 선다) 누구의 명령을 듣고 싶나?  
                     지금 이건 전두환 장군의 명령이야. 그리고 내일부터, 너희나 내가...  
                     계속해서 듣게 될 명령이다.  
이대령            .....

### 107. 경복궁 30경비단 2층 화장실

벌컥벌컥- 찬물에 세수를 하고 있는 전두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면, 젖은 얼굴에 불안감이 스며든다.  
뒤로 노태우가 슬그머니 다가선다.

노태우            1공수. 다시 출발했단다. 박희도가 해냈어.

별거 아니라는 듯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전두환.

전두환            내가... 이걸 뭐 하러 시작했나. 잠깐 생각했다.  
노태우            이제 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저 사람들, 다 니나 내만 보고 왔는데.  
전두환            우릴 본 게 아니야.  
노태우            (보면)  
전두환            저 인간들. 떡고물이 떨어질 까, 그걸 본 거지.

전두환의 매정한 말에 정이 떨어지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노태우이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전두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노려보며) 떡고물. 입에 처넣어 줄게 내가.

### 108. 육군본부 B2병커

전화로 보고를 받았는지, 수화기를 들고 있는 윤성민 참모차장의 표정이 경직된다.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는 윤성민. 굳은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장군들을 보는데,

김진기 (다가와) 차장님.  
윤성민 1공수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침통한 분위기. 탄식이 들린다.

김진기 (부관에게) 국방장관님은?  
부관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 109. 고속화도로, 이동 중인 지프 안

사이렌을 달고 빠르게 달리는 지프 안.  
1공수 소식을 전달받았는지 흥분한 장태완. 용인의 3군 사령부 이건영 장군과 통화 중이다.

장태완 (수화기에) 지금 1공수 병력 천 명 정도가 다시 한강을 건너려 하고 있습니다.  
빨리 기계화 사단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이건영 지휘관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개입하기를 주저 하고 있습니다.  
장태완 26사단하고 다른 2개 사단 정도를 보내주시는 건 어떻게습니까?  
이건영 이미 노태우 9사단 백마부대가 전방을 비우고 이동 중이라...  
장태완 저놈들은 지금 육본으로 향하고 있는데, 저희도 움직일 수 있는 부대는  
최대한 움직여야 대치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영 아무리 그래도 전방 부대를 또 빼는 건... 전방을 더 비우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태완 장군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허나... 지금 상황이 너무...  
이건영 전방 병력을 더 움직이면 북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제 입장에서...  
장태완 (한숨)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장태완. 침통하다.

박동원 이미 1공수가 다시 출발했다면, 우리가 9공수에 도착 할 때쯤 이미 상황이 종료됩니다.  
장태완 (고심하는) 9공수 연결해. 내가 직접 통화 해야겠다.

### 110. 부평 9공수여단 본부 (장소 고민중)

심난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는 제9공수 여단장 윤흥기 준장. 이미 전투복장 차림이다.  
창밖으로, 연병장에 도열해 비상 출동 대기 중인 병력을 지켜보며 고심 중인데,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작전참모            보안사 쪽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작전참모가 손으로 막은 수화기를 건네자 망설이는 윤흥기, 이때 문이 열리며 정보참모가 들어와,

정보참모            수경사 장태완 사령관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윤흥기                .....

작전참모            어느 쪽이든 받으셔야 함다.

괴로운 표정의 윤흥기 9공수 여단장. 난감한 얼굴로 두 참모를 번갈아 쳐다보는,

### 111. 고속화도로, 이동 중인 지프

상대의 응답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전화기를 들고 있는 장태완인데,  
'윤흥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린다!

장태완                (황급히 수화기에) 나 장태완이요! 여단장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잘 압니다!  
여단장님은 원칙주의자라고, 내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군끼리 병력이 충돌하는 일은 저도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 두고 볼 순 없지 않습니까?

윤흥기                (가만히 듣고 있다)

장태완                여단장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게 아군이라는 게,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군한테 죽는 거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싸울 땐 싸워야 군인 아닙니까? 선택은 여단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제가 아는 원칙을 위해 오늘 밤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윤흥기)              1공수가 다시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장태완                네, 1공수 일 천 명 정도가 육본을 장악하기 위해 이동 중에 있습니다.

육본에는 저나 보안사령관의 상급자인 참모차장과 예하 장군들이 있습니다.

윤흥기                서울에서 우리끼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공수가 육본을 장악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장태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단장님!

### 112. 몽타주, 1공수와 9공수 교차

- 강변도로. 이동 중인 지휘 차량. 뒷자리에 박희도 1공수 여단장과 참모 이대령이 동승해 있다.  
다시 1공수 병력을 출동시켜서 서울로 이동 중이다.

- 경인고속도로. 다른 지휘 차량. 결연한 표정의 윤흥기가 탑승해 있다.  
9공수의 트럭과 장갑차 행렬이 서울로 진군하는 중이다.

(무전기)              단장님. 보안사 쪽에서 계속해서 병력을 원대복귀 시키라고 요구합니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윤흥기 (굳은 표정으로 반응이 없다)  
(무전기) 단장님과 직접 얘기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윤흥기 (무전기를 잡더니) 이 무전을 청취하는 전 지휘관 및 대원들은 똑똑히 들어라!  
병력을 출동시킨 이상, 우리를 저지시키려는 자들은 전부 적군으로 간주한다.  
지금부터 특전사령부 통신 외에는 일체 차단한다! 이상!  
(조수석 작전참모에게) 최대한 빨리 이동해.  
작전참모 네, 알겠습니다!

### 113.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전화기를 든 허화평이 소리친다.

허화평 큰일 났습니다! 9공수가 곧 서울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노태우 목적지는?!  
허화평 30경비단... 여깁니다.

목을 내뻗는 장군들. 다들 올 것이 왔다는 눈빛으로 겁에 질린다.

노태우 (전부에게) 9공수에 누구 우리 쪽 없어?!  
백운택 거기 여단장 윤흥기는 비육사 출신이라...  
유학성 그 놈. 나도 알지. 외골수야...  
허화평 아예 교신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차규현 9공수는 한 시간 안에 서울 들어오잖아?  
황영시 어떻게 좀 해봐! 이려고 단체로 공동묘지 들어 갈 거야?!

다들 각자 떠들고는 있지만, 결국 모든 질문은 전두환을 향해 있다.

묵묵히 듣고만 앉아있는 전두환. 뭔가 다른 계획을 구상 중인 건지 아닌지 속을 알 수 없다.

차규현 그러지 말고 장소를 이동하는 게 어때?  
유학성 어디로?  
차규현 글썄, 일단 각자 흩어져 있는 겁니다. 1공수가 육본을 장악하는 동안만이라도.  
백운택 (끄덕이며) 저들은 육본을 비울 수 없지만 우린 임시로 모인 거니까.

다들 호응하는 분위기. 몇몇은 일어서려고 하는데,

노태우 가긴 어딜 갑니까, 이제 와서!  
차규현 그럼 이대로 여기서 단체로 제압당할 거야?  
노태우 우리가 피했다는 사실을 알면 저쪽은 더 끈끈하게 뭉칠 텐데.  
우리가 뒤에서 흔들리면, 1공수 끌고 오는 박희도가 장악력이 흔들릴 수도 있고.  
차규현 그래서 공수 부대 애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고?  
노태우 아니 그런다고 도망을 갑니까? 이쪽도 사생결단이란 걸 보여줘야지.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차규현            도망이라니! 1공수가 육본을 잡는 동안만 흩어졌다 다시 모이자는 건데!  
노태우            그게 도망 아닙니까? 선배도 돼 갖고서! 자리를 지켜 줘야지 말이야!  
차규현            뭐?! 말 그 따위로 할 거야!

격앙되는 두 사람인데, 갑자기 쿵쿵!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모두를 조용히 시킨다.  
전두환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순간에 모아지고,

전두환            예유... 거 참 시끄러워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없네.

벌떡 일어서더니 양주병을 들어 커피 잔에 팔팔 따르는 전두환. 시원하게 원 샷을 하더니,

전두환            (숨을 길게 내쉬고는) 후... 신사협정. 갑시다.  
황영시            신사협정?  
전두환            육본이랑 협정을 제안하는 겁니다.  
황영시            어떻게?  
전두환            뭘 어떡해야? 우리가 1공수 철수 시킬 테니까 9공수 물리라고 하는 거지.  
차규현            그래서?  
전두환            거참, 이래 손발이 안 맞아서야. 오늘 밤 시간 싸움이라며?  
우리가 육본을 먼저 장악하면, 그 다음은 게임 끝 아니야?

그 말이 타당한지 곱씹어보는 장군들.

백운택            근데, 재네들이 그 말을 믿어 출까?

전두환, 장군들을 하나 씩 쳐다보며 뚫을 들어더니,

전두환            9공수가 왜 이제 나왔겠어? 자들 엄청 후달린다고 지금.  
서울 한 복판이 불바다가 될 까봐. 그게 자기들 때문일 까봐.  
일동            (불바다라는 말에 다들 경직된다)  
전두환            우리는 뭉쳐 있지만, 사실 저 쪽은 장태완 하나뿐이라고.  
어떻게든 싸우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안 받을 수가 없다 이거지.

가만히 듣고 있는 장군들. 유학성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

전두환            화평이. 9공수 위치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  
허화평            네.  
전두환            육본으로 전화 돌려. 내가 직접 통화 할 테니까.

허화평이 전화기로 다가간다.

다들 초조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수화기를 드는 허화평.

114. 육군본부 B2병커,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교차

윤성민 참모차장이 수화기를 든다.

윤성민 (수화기에) 이 사람이 이제야 연락을 하는구만.  
전두환 안녕하십니까, 전두환입니다.  
윤성민 안녕하냐고 물은 건가. 자네 이렇게 재밌는 친구였나.  
전두환 참모차장님. 총장님은 박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점이 있어 연행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윤성민 대통령 재가 없이 계엄사령관을 불법 연행했으면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야. 자네는 반란군 수괴고, 국가 반역죄는 사형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  
전두환 재가는 받을 겁니다. 서류는 완벽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모차장님과는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윤성민 그런 사람이 전방 병력을 뺏나?  
전두환 복귀 놈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라고 이래하고 싶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군끼리 충돌은 피해야지 않겠습니까? 참모차장님께서 9공수를 빼주시면, 저도 시원하게 1공수 물리겠습니다.  
윤성민 서로 부대를 물리자?  
전두환 참모차장님 정치력으로 내전까지 번지는 걸 막는 겁니다. 여기서 자칫 불상사가 벌어지면, 참모차장님이나 저나 두고두고 역사의 대죄인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윤성민 그러게 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끌고 오나.  
전두환 만약에 우리끼리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북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책임 소재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제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습니다. 일단 참모차장님이 결단을 해주십시오.  
윤성민 무슨 소린지 알겠는데, 1공수 먼저 빼는 거 확인하면, 9공수 원대복귀 시키지.  
전두환 약속하시는 겁니까?  
윤성민 한 입으로 두 말 할 사람으로 보이나.  
전두환 그럴 리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윤성민 차장. 돌아서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 자신을 주시하는 여러 장군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호흡을 고르는 윤성민 차장.

115. 행주대교 복단 검문소

잔뜩 긴장한 채 행주대교 남단 입구를 살피는 검문소 병력들.  
멀리 멈춰 서 있는 1공수의 불빛을 검문소장 쌍안경으로 주시하고 있다.

검문소장 (불안한) 왜 서 있는 이유가 뭐야?

116. 몽타주, 신사협정이라는 트릭

- 신월 IC 부근 고가 위. 지프가 세워져 있고,  
망원경으로 부평 쪽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을 주시하고 있는 장태완과 박동원.

장태완            왜 이렇게 안 와...

초조하게 지켜보는 두 사람인데, 이 때 지프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불길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장태완. 그 위로 개화 검문소 통신병의 무전 소리 선행되고,

(무전소리)        1공수가 행주대교 진입로에 멈춰서 대기 중입니다.

- 행주대교 진입로. 1공수의 차량들이 시동이 걸린 채 행주대교 전방에 일제히 멈춰서 있다.
- 지프 밖에 서서 통화 중인 장태완.

장태완            (수화기에) 9공수를 물린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 육본 벙커. 상황실 밖으로 나와 통화 중인 김진기 현병감.

김진기            (수화기에) 전두환이 서로 공수부대를 물리자고 불가침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최악의 사태는 막자는 분위기여서,

장태완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불렀는데?!  
저놈들 진압할 방법은 9공수가 먼저 저쪽을 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놈들 말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김진기            저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다들 무력 충돌이 발생할 까봐 겁을 내고 있어요.  
일단 1공수가 행주대교 앞에서 철수하는 걸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저쪽이 정말 하는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고속화도로. 이동 중인 9공수 지휘 차량. 무전이 전달된다.

(윤성민)        9공수 여단장. 나 참모차장입니다. 9공수 응답하세요!

윤흥기            (무전을 받아) 9공수 여단장 윤흥기입니다.

(윤성민)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윤흥기            잠시 뒤 신월 IC를 통과합니다.

(윤성민)        지금 위치에서 부대 대기하세요.

윤흥기            곧 도착 예정인데, 혹시 철수하란 말씀입니까?

(윤성민)        철수가 아니고, 현 위치 대기하고 추가 지시를 기다리세요. 이상입니다!

- 행주대교 개화 검문소. 여전히 꿈쩍도 않고 멈춰 서 있는 1공수 차량들.  
쌍안경으로 그런 1공수 부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검문소장인데,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망원경 시야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된다. 어둠 속에서 갓길로 은밀히 이동 중인 병력들을 발견한 것이다! 함급히 전화기를 집어드는 검문소장과 동시에, 확- 안으로 들이닥치는 1공수요원들!

요원            움직이면 쏜다! 전부 엎드려!  
검문소장        (물러서는데)  
요원            (퍽! 개머리판으로 내려치며) 엎드리라고!

이미 검문초소 주위를 1공수 병력들이 에워싸고 있다.  
검문소와 주변 경비 병력들을 제압하는 1공수들.

- 신월IC 고가 위. 랑! 수화기를 내려놓는 장태완. 불안감에 안절부절해 한다.

박동원            어떻게 할까요?  
장태완            (고심하다) 행주대교로 가.

- 행주대교 복단 검문소. 검문소장이 통화 중이다.

검문소장        (떨리는 목소리) 예, 확실히 돌렸습니다...  
                      예... 부대 후미 불빛도 이제 거의 안 보입니다.

화면 빠지면, 박희도가 검문소장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

- 고속화도로. 갓길에 길게 정차 중인 9공수 병력들.  
지휘 차량 안. 무전이 전달된다.

(무전기)        9공수 전달한다. 상황이 종료됐다! 9공수 전 병력들 부대로 복귀한다!  
참모관        육본에서 복귀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윤흥기        (고심하는데)

- 육군 본부 병커. 윤성민 차장이 수화기를 집어 든다.

참모관        (수화기에) 참모차장입니다.  
(윤흥기)        9공수 여단장입니다. 복귀하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쪽에서 지시한 거 맞습니까?  
윤성민        네, 9공수 복귀하세요.  
(윤흥기)        저희는 목표 지점까지 삼십분 안에 도착 가능합니다. 어째서 철수하는 겁니까?  
윤성민        저쪽이랑 협약을 했어요. 1공수도 복귀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대 복귀하세요.  
(윤흥기)        1공수 철수한 건 확실합니까?  
윤성민        몇 번을 얘기합니까! 우리 쪽에서 확인했다니까! 9공수 복귀하세요. 당장!

통화 중인 윤성민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김진기.

윤성민 (전화를 끊고는 부관에게) 행주 대교 검문 소장한테 1공수 따라 붙어서  
서울 외곽으로 빠지는 거 까지 확실히 확인하라고 해.  
부관 예, 알겠습니다.

117. 육군본부 B2병커 입구 & 상황실

어둠 속, 지프 한 대가 홀연히 불빛을 밝히며 다가오더니 병커 입구에 멈춰 선다.  
차량에서 내리는 노재현 국방장관. 짐짓 옷매무새를 만지고는 위엄 있는 자세로 걸어 들어간다.

병커 상황실. 일어서서 노재현을 기다리고 있는 장군들.  
그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노재현. 윤성민 차장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다.

김진기 (목소리 높아지며) 장관님.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노재현 으흠, 내 한미연합사에 있다 왔어요. 계엄사령관이 연행되었다고 하는데,  
미국 측 의견도 물어봐야 하고.  
김진기 아니 그걸 왜 미국에,  
윤성민 (손을 들어 제지한다) 일단 제가 전두환을 설득해서 공수부대끼리 충돌을 막아냈습니다.  
이제 국방장관께서 나서서 군의 입장을 저들에게 명확히 알려 주셔야 합니다.  
노재현 아니 도대체 어쩌다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겁니까?  
대화로 해결할 생각들을 해야지, 일들을 그렇게 처리합니까들!  
김진기 장관님! 대화라니요? 직속상관을 납치 한 자들이랑 무슨 대화를 합니까?  
노재현 아니 그러니까...  
김진기 (열이 받아) 저들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선동에 군의 지휘 체계가 교란되고!  
다수의 군인들이 반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화로,  
윤성민 헌병감! 뭐하는 거야 지금!

삭막해지는 분위기. 다들 침묵한다. 이 때 급히 문이 열리며 부관이 달려 들어온다.  
황급히 윤성민에게 귓속말로 전달하는 부관인데, 윤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노재현 뭐야? 왜 그래요?  
윤성민 (침통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한다)  
노재현 부관! 뭐야 빨리 얘기 해 봐!  
부관 1공수가 방금... 행주대교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 소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다들 얼어붙는다.

노재현 (윤성민을 보며) 돌아갔다면?  
윤성민 (망연자실한).....

118. 행주대교 복단 검문소, 이동 중인 지프 차량 교차

- 검문소 안. 1공수 병력의 끄트머리가 행주대교를 건너 멀어지는 게 보인다.  
전화벨이 울린다. 누군가 전화를 받는데,

- 이동 중인 차량 안. 장태완이 수화기를 붙들고 있다.

장태완 (상대가 받았는지) 검문소장이요? 누구요 당신? 관동성명을 대!

- 검문소 안. 무장해제 된 채 도열해 앉아있는 검문소 병력들.  
전화를 받은 자는 1공수 대위다.

1공수대위 지금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 특- 끊기는 전화. 망연자실한 장태완,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박동원. 전화가 울리자, 재빨리 전화를 받는데,

박동원 (수화기에) 작전참모 박동원입니다! 어... 지금? 그래, 알았어.  
(끊고는 장태완에게) 자택에서 전화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사모님이신 거 같은데... 통화해 보시겠습니까?

장태완 (무력하게 창밖만 보고 있다)

박동원 (눈치를 살피며) 사령관님... 일단 복귀해 부대를 정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까닥 하단 필동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장태완 .....

119. 육군본부 B2병커

장군들 모두 침통한 가운데, 윤성민 낮이 나간 듯 물끄러미 한 쪽에 앉아있다.

노재현 1공수가 온다면... (윤성민을 보고) 다시 9공수를 부르셔야죠~

장군1 그 전에 1공수가 여기로 들이닥칩니다.

노재현 아니, 여기 병력으로 버티는 동안이라도 빨리 불러오면 되지 않습니까?

장군1 장관님, 여기엔 헌병경비중대 달랑 하나 뿐인 거 모르십니까?

노재현 (슬그머니 일어서더니) 난 말야... 다시 한미연합사로 가 봐야겠어. 가서..

장군1 (답답한) 저희랑 계셔야지. 거긴 또 뭐 하러 가십니까?

노재현 미국 애들한테 알리는 게 맞잖아. 아냐?

김진기 죄송한데요, 대체 어느 나라 국방장관님이십니까?!

노재현 (눈을 부라리며) 김진기! 너 지금 어따 대고...!

장군2 현재 우리 쪽엔 수도경비사령부 전투병력 뿐입니다. 거기서 옮기시면 어때요?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 120. 시내를 달리는 장태완의 지프

계속해서 어딘가와 통화 중인 장태완.

장태완 (수화기에 다급히) 구파발 검문소 좌우방벽에서 막으면 얼마간은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장군님... 장군님!

상대가 끊었는지 수화기를 내려놓는 장태완. 절망감에 망연자실한데,  
이때 울리는 전화. 다급히 전화를 받는 장태완.

장태완 (수화기에) 장태완입니다! (가만히 듣더니) 육본에서 넘어온다고요?  
그게 지금... 지휘부가 자릴 비우면 거기 있는 병사들은 누구 따릅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든 지킬 생각들을 해야지...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숨) 알겠습니다... 그리 하시지요. 수경사로 오십시오.

탁! 수화기를 내려놓는 장태완.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다 얼굴을 쓸어내린다.

박동원 육본 지휘부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답니까?  
장태완 (한숨)  
박동원 지휘부들... 전부 장군님 뒤에 숨겠다는 건데, 만에 하나 정말 전두환이 장악하면...  
이러다 장군님만 희생양 되는 거 아닙니까?  
장태완 (발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박동원 ...죄송합니다.

### 121. 육군본부 B2병커

모든 인력이 떠날 준비를 하느라 경황이 없다.

윤성민 (소지품을 챙기며) 작전지휘부에서. 최소 인원만 가는 걸로 합시다.  
노재현 거긴... 진짜 안전한 걸까?  
장군1 여기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노재현 (불안초조).....  
김진기 육군본부를 이대로 그냥 넘겨주자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수도권 모든 부대 지휘관이 흔들릴 겁니다.  
국방장관님께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군에 명확히 밝혀 주시면..  
노재현 야, 야야~ 일단 지휘부를 옮긴 다음에! (점퍼 위에 모직 코트까지 챙겨 입으며)  
내가 전두환이랑 오해를 풀어 본다니까~ 그래도 전 장군이 내 말을 잘 듣고 그러거든.  
김진기 (자르며)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게 지금 할 소립니까?!!  
노재현 아니 이 자숙이 보자보자하니까.. 겨우 별 하나 달고 국방장관한테 그 따위로 말하는거  
어디서 배웠어!! 내가 전두환을 잘 달래보겠는데, 그게 제일로 좋은 해결책인데, 머?  
김진기 군사반란을 일으킨 자를 달래십니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정신 좀 차리십시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김진기의 호통에 움찔하는 노재현. 다들 나가려고 허둥대다가 잠시 멈칫한다.

권총을 꺼내 장전을 확인하는 김진기. 놀라서 당황하는 장군들인데,

윤성민 (놀라) 어이 헌병감...!

김진기 (탁! 권총을 탁자에 놓는) 제가 어떻게든 여기서 막아 볼 테니 자리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또 한 번 쿠데타로 나라가 뒤집어지면... 그건 우리 군의 수치고 치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여기 B2병커에 남아서. 저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함다.

일동 (서로 눈치만 보는)

### 122. 육군본부 B2병커 입구

김진기의 말이 무색하게, 우르르 병커를 빠져나오는 윤성민 차장과 진압군 장성들이다.  
여러 대의 차량에 서둘러 탑승하는데, 맨 앞 차량의 윤성민이 밖으로 고개를 길게 빼고

윤성민 잠깐만~ 국방장관님은?

장군1 (뒤돌아보고) 아~ 어디 가셨어 또~?

장군2 (두리번) 아까 먼저 나오셨는데. 앞서 가셨나 봅니다.

윤성민 일단 갑시다. 알아서 오시겠지. (운전병에게) 출발해.

### 123.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전두환 (통화 중, 흡족한 듯) 그래. 알았어.  
(끊고는 장군들에게) 육본을 버리고 전부 수경사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황영시 등신들. B2 병커는 깨기가 힘든데. 수고를 덜게 됐네.

전두환 화평이. 1공수한테 연락해.  
육본 들어가면서 앞에 국방부까지 전부 밀어버리라고 해.

허화평 예, 알겠습니다.

백운택 그 양반들... (슬쩍 웃으며) 결국 이렇게 될 거를.

전두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일동 (쳐다보면)

전두환 장태완. 정병주.

노태우 (허화평에게) 정병주 사령관 쪽은?

허화평 최세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 124. 송파 특전사령부 본관 앞 & 부속실 & 2층복도 & 사령관실 / 밤

- 어둠에 잠긴 본관 외경. 미니버스 여러 대가 정차해 있고, 버스 앞자리에 공수특전사 중령계급의 사내가 불이 켜진 2층 사령관실을 긴장된 시선으로 주시한다. 3공수 15대대장 박종규 중령이다.

무장한 공수대원들이 버스마다 가득 들어찼는데, 3공수 여단장 최세창이 선두버스에 오른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최세창 (박종규에게) 김오랑 소령이 친구라고 했나?  
박종규 육사 일 년 후輩입니다. 관사에서 바로 옆집이라 집사람들끼리도 잘 압니다.  
최세창 (어깨를 짚으며) 개인적인 유감은 없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명령을 수행하는 거다.  
박종규 .....  
최세창 (병력에게) 명령에 불응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사살해도 좋다.

- 특전사령관 부속실에서 인원들이 몰래 빠져나간다.  
사령관실 문을 열고 나오는 사령관 비서 김오랑 소령. 부속실 인원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자 당황한다.

김오랑 (복도를 뛰는 누군가 발견) 야, 김대위! 잠깐 서 봐.

복도를 뛰어나가는 김오랑. 하지만 복도는 이미 텅 비어있다. 망-연-자-실....

- 사령관실 책상에 혼자 앉은 정병주, 베레모자를 잘 접어 머리에 쓴다.  
- 그런 사령관을 묵묵히 바라보는 참모 4명(인사,작전,정보,군수). 그때 다급히 들어오는 김오랑

김오랑 경비병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린 뒷문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정병주 .....  
참모들 (격하게 동요하는)  
김오랑 사령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놈들이 곧 들이닥칠 겁니다!

정병주는 침통함을 애써 감추고, 두려움에 질린 참모들을 가만히 응시한다.

정병주 참모들은 어서 나가.  
인사참모 사령관님. 빨리 피하시죠.  
정병주 내가 뭐 죄를 졌나? 괜찮아~ (애써 부드럽게) 자네들은 전부 나가 있어. 명령이다.  
김오랑 사령관님!  
정병주 (담담히) 김오랑. 너도 참모들 따라서 나가.

참모들 스르르 사령관실을 나간다. 김오랑을 잡아당기는 인사참모의 손, 하는 수 없이 나가던 김오랑이 문 앞에 멈춰 선다. 발길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정병주가 턱짓으로 열린 나가라고 한다.

김오랑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잠시만 계십쇼..

뭔가 결심한 김오랑! 갑자기 부속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부속실의 가구와 철제캐비닛을 마구 끌어당겨 사령관실 입구를 겹겹이 막는다. 그러는 오랑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정병주, 탄식의 표정이 스친다.

<인서트> 2층 복도로 올라온 공수부대원들, 방마다 뒤지면서 잔여인원을 찾는다.

부속실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지르는 김오랑, 권총 두 정을 꺼내 탄창을 채우고 여분의 탄창도 채운다.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사령관 책상에서 일어서는 정병주, 그도 똑같이 권총을 꺼내 탄창을 점검한다.  
거친 숨결, 하지만 덩덤한 표정으로 권총을 점검하는 두 남자의 모습..

- 복도, 사령관실 팻말이 달린 문 앞에서 박종규 중령이 거총을 한 부하들에게 수신호로 대기하라는.

박종규           (큰소리로) 우리가 본부건물을 접수했다! 저항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5초 내로 문을 열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 사령관실, 정병주와 김오랑이 조용히 문쪽을 응시한다. 서로 짧게 눈길이 마주치자

정병규           넌 뭐하러 이러냐?  
김오랑           (미소) 사령관님은 제가 모셔야지요.

김오랑이 양손에 권총을 파지한 상태로 문가쪽으로.. 정병주는 자기 책상에 천천히 다시 앉고.

(박종규)       문을 열어! 김오랑~! 나 박종규다. 문을 열지 않으면 발포한다고!!  
김오랑       사령관실로 들어서는 자는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

- 박종규가 병사의 M16으로 문손잡이를 박살낸다. 탕탕탕! 그러자 병사들이 일제히 사격한다. 타타타타타

- 사령관실 안쪽, 총알이 하나둘 뚫고 들어온다. 부속실을 부수고 들어온 듯 사령관실을 향해 난사한다.

그러자 김오랑도 양손의 권총을 발사한다. 탕탕. 탕탕탕.

특전사령관 정병주도 권총을 겨누는데, 엄청난 폭음과 함께 사령관실 문의 장애물이 박살나 버린다.

먼지와 굉음과 연기 속에서 타타타타타타타타 공수부대가 사령관실로 진입한다.

응사하는 김오랑, 탄창이 떨어졌다. 교체하고 다시 당기는데 박종규의 어깨를 스치는 김오랑의 탄환.

순간 박종규가 응사한다. 공수부대원들의 개인화기가 한 곳에 집중되면서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김오랑이 맞고 쓰러진다. 멈추지 않는 사격, 그걸 본 정병주가 응사하면서 김오랑을 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쏟아지는 총탄세례에 그만 펄, 펄.. 정병주가 바닥에 쓰러진다.

사격중지~를 외치는 박종규. 먼지와 화염이 가라앉고 비로소 아수라장이 된 사령관실이 드러난다.

피를 흘리는 정병주. 특전사 부하들에게 붙들려 일으켜지는데, 들어서는 최세창을 목격한다.

정병주       최세창이... 네 놈이 어떻게... 넌 이 특수전 사령부의 3공수 여단장이야!  
어디서 전두환이 풀마니 짓을 하고 있어!

최세창       수도권 내 많은 지휘관들이 전두환 사령관님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총장은 그날 김재규와 함께 궁정동에 있었고,  
그것만으로 이미 계엄사령관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정병주       넌 군인이야, 군인...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  
니 의견, 니 생각 그거 지키라고 니들한테 총알 내 준 게 아니야!

최세창       사령관님께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정병주       너 이...

최세창       (대원들에게) 모시고 가.

부하들에게 집무실 밖으로 끌려 나가는 정병주. 그런데 숨진 김오랑의 피로 접견실 바닥이 흥건하다.  
그 앞에 안타까운 듯 쪼그려 앉아 지켜보고 있는 박종규.

정병주            김오랑! 김오랑! (한 손으로 김오랑의 소매를 짊 붙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 한다)  
                     박종규... 니 친구야, 친구!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종규            (시선을 피한다)  
정병주            니들이 어떻게... 죽일 놈들... 니들이... (눈물을 흘린다)

특전사들이 김오랑의 옷을 짊 잡은 정병주의 손을 강제로 떼어낸다. 발버둥치는 정병주가 끌려 나간다.  
서서히 죽어가는 김오랑을 보면서 박종규는 죄책감으로 일그러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나가려는 최세창인데, 집무실 내 전화기가 울린다.

#### 125. 필동 수경사 사령관실

장태완이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서 전화를 걸고 있다. 상대가 받았는지.

장태완            (수화기에) 사령관님. 장태완입니다!  
(최세창)        특전사령관님은 방금 체포되었습니다.  
장태완            너 누구야..?  
(최세창)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수경사령관님께서도 잘 판단해 주셔서,  
                     더이상 아군끼리 불필요한 희생,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툭- 끊기는 전화. 장태완, 분노로 표정이 일그러지고, 갑자기 수화기를 쿵쿵! 미친 듯이 내려치기 시작한다.  
썩썩거리며 화를 삼키는 장태완.

#### 126. 몽타주: 1공수에 장악되는 육군본부, 국방부

- 과광! 육본 정문 앞. 1공수의 장갑차가 바리케이드를 밀어버린다.

장갑차를 앞세워 육본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1공수 병력들이다.

뒤로 후퇴하는 육본 헌병들과 1공수간에 교전이 일지만,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1공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 국방부 옥상 위, 별칸포를 쥔 병사가 밀고 들어오는 1공수 병력에 위협사격을 가한다.

장갑차에 기관총 사격이 가해지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병력들인데, 건물 뒤로 밧줄타고 올라온 1공수대원들이 발칸포 진지 뒤에서 조준사격한다. 타타타타타타타! 발칸포를 쥔 정선엽 병장이 무참히 쓰러진다.

투항하는 방공포 병력을 무장해제 시키고, 퍽, 퍽!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후려친다.

- 육본 B2버거 내부. 문 너머에서 총격 소리가 계속해서 울린다.

탁자 위에 놓인 권총 한 자루. 비통한 얼굴로 우두커니 앉아있는 김진기 헌병감.

화면 빠지면, 장성들과 참모들이 있던 자리는 김진기 외에 텅 비어 있다.

밖에서 문에 대고 총격이 가해지고, 우르르 들어서는 공수대원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온다.

- 국방부 내부. 총을 겨누는 1공수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진입하여 저항하는 몇몇 군인들이 교전을 벌이지만, 곧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는 모습들. 빠르게 국방부 각층을 장악해 가는 1공수대원들.

- 국방부 지하 보일러실. 갸름한 공간에 공수부대가 플래시 불빛을 뿌리며 들어온다. 이곳저곳 플래시를 비추는데 뭔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있다. 접근하는 공수부대원들. 불빛에 드러나는... 국방장관 노재현, 양손을 들면서 웃는 표정을 짓는다.

노재현 (손을 저으며) 나야 나, 쏘지 마! 나 국방장관님이다!

#### 127. 수경사 사령관실, 장태완의 자택 교차

침통한 표정으로 우두커니 홀로 앉아있는 장태완. 지쳐 보인다.

책상에 놓인 가족사진을 보다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내는 장태완. 펜을 들어 종이에 뭔가를 적으려는데, '선우, 현리 보거라' 가족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적으려다 차마 적지 못하고...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

장태완 (수화기를 들어) 여보세요.

처 오신다고 해서 상 차려 놓고 있는데, 더 늦으세요?

장태완 어떡하지... 오늘도 들어가기 힘들 겠어.

처 당신 좋아하는 찌개 끓였는데.

장태완 그러게. 미안하네...

처 웬일로 그런 말을. 바빠도 끼니 꼭 챙겨 들어요.

장태완 그래... 그래요. 미안해.

처 왜 그래요 갑자기. 별 일 없는 거죠?

장태완 별 일은 뭐...

처 참, 거기 안에 목도리 있을 거 예요. 현리가 당신 준다고 사왔는데, 내가 말한다는 걸 깜박했지 뭐예요. 날도 찬데 목에 항상 두르고 계시요.

Cut to. 집무실 밖. 문 앞에 묵묵히 선 박동원. 장태완이 통화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장태완) 그래... 저기... 내가 못 들어가도 애들 좀 잘 부탁해.

처 애들은 잘 있어요. 당신이나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요.

장태완 .....

처 여보세요?

장태완 그래... 기다리지 말고 어여 주무시오.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는 장태완. 책상 한쪽에 둔 쇼핑백을 집어 안에든 스카프를 꺼내 바라본다. 딸아이가 사준 알록달록한 스카프... 가만히 보다 군복 안으로 목에 두르는 장태완.

박동원 (들어서며)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전부 대기 시켰습니다.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장태완            전부 얼마나 되지?  
박동원            전차 4대와 병력 백여 명 정도입니다.  
장태완            행정, 취사병, 비전투 인력까지 다 합치면?  
박동원            합친 숫자입니다.  
장태완            .....

전화기를 집어드는 장태완.

장태완            (수화기에) 야포단장. 나 사령관이야. 지금 시각부로 효창동의 전포대를  
                      경복궁 30경비단에 정밀조준하고, 언제든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하시오.  
박동원            !!!  
장태완            (전화를 끊고는) 전 대원 무장해서 지금 즉시 출동한다.  
박동원            사령관님!  
장태완            목적지는 경복궁 30경비단이다.  
박동원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장군님은 할 만큼 하셨습니다.  
장태완            할 만큼? 나라가 반란군 손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게 지금...  
                      (한숨) 너도 그놈들한테 전화라도 받은 거야?  
박동원            네. 전화가 왔습니다. 쌍욕을 해주고 끊었지만 말입니다.  
                      장군님. 다 돌아섰습니다. 끝까지 투항해봤자 결국 장군님만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장태완            .....  
박동원            공부 잘하는 아드님... 봄 되면 대학교 입학식 꽃다발이라도 들고 가져야죠.  
장태완            반란수괴들이 나라를 전복하는데, 끝까지 투항하는 군인 하나 없으면, 그게 나라야?  
박동원            .....  
장태완            누구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  
                      오늘 밤 비극이 있다면... 바로 그거다. 누군간 창피한 줄은 알아야지.  
박동원            야포 사격이 이뤄지면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장태완            (일어선다) 출동한다. 그건 현장에서 내가 판단해.

뒤돌아 철모를 집는 장태완. 철모를 쓰다 이상한 기운에 돌아보면,  
박동원이 권총을 겨누고 있다!

박동원            잘못된 판단으로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장태완            .....  
박동원            포기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장군님...  
장태완            그렇게 결정했으면 쏴라. 내가 아는 한 자네는 가장 유능한 지휘관이다.  
                      부하들을 위해 그게 옳다고 판단되면 방아쇠를 당겨.

박대령을 지나쳐 문으로 성큼성큼 향하는 장태완.

박동원            가만 계십시오... (총을 겨누며) 거기 서십시오!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는 장태완.

#### 128. 필동 수경사 연병장

연병장에 모인 백여 명 남짓의 병력들. 완전 군장으로 도열해 있고, 취사병들까지 전부 나와 있다.  
긴장한 표정들이 병사들 얼굴에 역력하다.  
연단에 올라서는 장태완. 잠시 숨을 고르며 그들을 둘러본다.

장태완       야밤에 다들 고생들이 많다. 전달받은 대로, 반란군은 참모총장님을 납치하고,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장악하고 현재 30경비단에 모여 있다.  
저들은... 국가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하극상을... (말을 쉽게 잊지 못한다)  
저질렀으며... 내란을 일으켜... 우리 군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장태완.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한다. 의아하게 쳐다보는 병사들인데,

장태완       ...미안하다. 솔직히 면목이 없어서... (한숨) 제군들 마주하기가 너무 괴롭다...  
일동       (의아하게 쳐다보는)  
장태완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건 제군들 잘못이 아니다. 나 같은 지휘관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같이 싸우러 가자고... 명령을 내릴 자격도 없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너무 쪽팔릴 거 같아서... 평생을 후회하고 살 거 같아서...  
나 혼자라도 전차 몰고 30경비단으로 쳐들어 갈 생각이니까...  
내키지 않는 대원은 물러서도 좋다...  
일동       (웅성거림,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들)  
장태완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

동요가 일지만 누구도 선뜻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다.  
이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박동원 대령을 보는 장태완.  
빠르게 다가와 단상 앞에 서는 박동원이다. 서로를 보는 두 사람. 긴장감이 흐르고...

장태완       오늘 우리가 불러일으킬 결과에 대해... 나는 한 치의 후회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생각이 같은 대원들이 있다면... 함께 해주길 바란다.

장태완을 응시하는 박동원이 뒤로 돌아선다. 도열한 병사들을 잠시 바라보는 박동원인데,

박동원       지금 이 시각부로 각 부대 임무 숙지하고, 전원 전투 준비한다! 알겠나?!

병사들       (우렁차게) 예, 알겠습니다!

박동원       전원 차렷! (찌렁찌렁하게) 사령관님께 경례!

병사들       필승!

박동원       (장태완을 향해) 필승!

장태완       (경례를 받으며) 필승.

박동원       (돌아서서) 전원 위치로!

‘위치로!’ 복명복창과 동시에 일산분란하게 트럭과 장갑차에 승차하는 병력들이다.

#### 129. 효창동 야포부대, 명동 신세계 앞길 교차

- 효창동 야포 부대. 105밀리 이동식 야전포 대열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무전을 받는 야포단장.

(장태완) 야포단 현 상황 보고!

야포단장 (무전기에) A3 구역 타겟 조준 상태로 전원 대기 중입니다!

- 불이 꺼진 신세계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 수경사 병력. 장태완과 박동원이 탄 지휘차량(지프) 뒤로 경장갑차 4, 전차3, 토우답재 집차 5, 트럭 5, 그 밖에 지휘관들이 탑승한 지프 4대가 이동하는.

(야포단장) 사령관님. 105밀리 포탄은 목표물 반경 백 미터 내외 민간인들 피해 불가피합니다.  
타겟 위치 확실합니까?

장태완 (무전기에) 타겟은 변함없이 경복궁 30경비단이다! 현 상태로 대기 하도록.

#### 130.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양주를 따는 황영시, 반란군 장군들이 하나둘 커피잔을 들고 오자 가득가득 따라준다.  
정중앙에 앉은 전두환 만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허화평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서 전두환에게 뭔가 전하는데.. 표정이 싸늘해진다.

전두환 1공수 준비시켜. 여기에 오면 다 싹 버려!

커피잔에 따른 술을 마시던 장군들이 일제히 쳐다본다.

황영시 뭐어? 장태완이가?

차규현 그 친구가 설마...?

전두환 (담담히)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 미친놈이 온다 안했습니까?

황영시 와 개또라이 새끼...!! 진짜 땡크를 끌고 오는 거야?

전두환 (황영시의 술잔을 가로채 바닥에 휙 뿌린다) 왔으면.. 잘 맞아줘야지.

#### 131. 세종로 중앙청 앞, 경복궁 30경비단 작전실 교차

- 수경사 병력이 종로에서 우회전하여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나아간다.  
전차의 캐터필러 사운드가 육중한 굉음을 뿜어내고 장갑차와 트럭의 병사들이 탄창을 장착한다.  
반란군 병력이 중앙청 앞과 측면도로(청와대, 30경비단 방면)에 바리케이드로 막아서고 있다.  
지휘차량 안. 무전기를 집어드는 장태완. 장착한 대형스피커에서 들려 나오는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장태완 '반란군들에게 전달한다! 나는 장태완 수경사령관이다!'

- 30경비단 작전실. 창가로 물리는 장군들과 전두환. 멀리 찌렁찌렁 들려오는 장태완의 목소리!

'지금 전차와 토우미사일, 그리고 155미리 포대가 너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작전실 모니터로 경복궁 앞에 진을 친 장태완의 병력이 보인다.

장태완 반란군 수괴들은 즉시 30경비단을 나와 투항하면, 발포 명령을 철회하겠다.

그리고, 수경사 소속 내 휘하의 병사들은 전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할 것을 명령한다!

멀리 창밖으로, 그리고 모니터로 수경사 병력을 보고 있는 장군들 표정이 하얗게 질린다.

그 사이 장세동이 외부 스피커와 연결시킨 무전기를 전두환에게 건넨다.

전두환 (무전기) 선배님. 전두환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다들 모여계시니까 서로 좋게, 대화를 하십시오.

장태완 대화는 사람끼리 하는 거야! 전두환이, 너 같은 군인이 우리 육군에 있다는 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다. 잡소리 말고 나와서 투항해라!

전두환 선배님~ 왜 이러십니까~? 육본과 총리공관, 국방부 다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이제!

장태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반란 수괴들은 지금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불응할 경우 즉시 발포하겠다!

전두환 이미 국방장관이랑 전부 얘기가 다 됐는데, 그 왜 혼자 아집을 부립니까?!

장태완 전두환이! 니 꼴마니들 데리고 당장 거기서 튀어나와!

전두환 (발끈) 아~ 이런 씨...

무전기를 집어던지더니 갑자기 씩씩대며 밖으로 뛰쳐나가는 전두환.

당황하는 반란군 장군들. 노태우와 함께 참모들이 우르르 뒤따라 나가는데,

- 연병장, 허화평과 함께 지프에 오른 전두환이 그대로 출발해 버린다.

황영시 등이 창밖을 내다보면, 전두환이 탄 지프가 빠르게 경비단 밖으로 나간다.

황영시 저, 저, 저 봐라. 저 성질머리 하고는...

- 장태완의 지휘 차량 안.

장태완 (무전기에) 전두환이! 마지막 기회다! 반란을 중단하고 투항해라!

자식 같은 부하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전두환이! 너가 군인이야?!

박동원 사령관님. (중앙청 옆 도로를 가리킨다)

전두환의 지프를 뒤따라오는 30경비단 병력들, 전차와 장갑차, 토우미사일과 전투병력이 탑승한 트럭..

같은 수경사 마크에 편제도 같은 전투병력인데.. 숫자는 장태완 측보다 서너배는 많아 보인다.

중앙청 바리게이트 뒤로 지프 한 대가 계속해서 상향등을 깜박거린다... 그리고 들어오는 무전.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전두환) 선배님 전두환 입니다! 내 직접 왔으니까 함 봅시다!

- 전두환의 지프 차량 안. 보조석에 앉아 직접 무전을 치고 있는 전두환이다.

전두환 선배님,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만하시고 얼굴 보고 얘기 합시다.  
잠깐 오십시오.

- 장태완의 지휘 차량 안. 계속해서 상향등을 깜박이는 지프 차량을 지켜보는 장태완. 고심하는데,

박동원 함정일 수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장태완 .....

- 전두환의 지프 차량 안. 운전석의 허화평에게 지시하는 전두환.

전두환 저격수들 대기하고 있지.

허화평 예.

전두환 나오면 바로 쏘버리라고 해.

- 건물 옥상 위. 저격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장태완의 지휘차량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들.

- 장태완의 지휘차량 안.

(전두환) 선배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만나서 협상을 하입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장태완 (무전기를 집어 든다. 이를 갈며) 전두환이...

- 전두환의 지프 안. 초조하게 기다리는 전두환인데.

(장태완) 너 같이 염치없는 인간은 살다 살다 처음이다. 개수작 부리지 말고, 니 풀마니들 데리고

당장 내 부대에서 튀어나와. 아니면 즉시 포격한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전두환 이런 씨...! (허화평에게) 어이! 1공수 전 병력 경복궁 앞에 집결시켜!

허화평 예, 알겠습니다.

- 장태완의 지휘 차량.

(전두환) 그래, 함 해봅시다! 쏘. 대신에 여기 폭격하면 청와대까지 다 날라 가는 거 알지?!

근방 삼 킬로 안에 민간인들 쏘 다 죽고, 서울 불바다 되는 거고!

내가 반란군이면, 장태완 당신은 괴물 되는 거야?! 각오할 수 있어?!

장태완 .....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이 때, 다른 무전 채널에서 들리는 무전 소리. 수경사 33경비단 김진영 단장이다.

(김진영) 이 무전을 수신하는 전 대원들에게 알린다.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목격할 경우  
그 즉시 사살하라! 이것은 국방장관의 명령이다.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사살하라!  
이 명령에 불복 시 반란군으로 간주한다! 다시 한 번 반복한다!  
장태완 !!!

황급히 무전을 꺼버리는 박동원 대령. 애써 침착하게 표정을 유지하는 장태완.  
하지만 외부 병력들에게 무전이 전달되었는지 수경사 대원들이 당황하는 모습들이고,  
새벽임에도 서촌과 세종로 근처의 시민들이 구경하려고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

전두환 1공수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 뒤의 상황은 장태완 당신이 만든 거야.  
그거 책임 질 수 있으면 씹!  
장태완 (박동원에게) 전차들, 전원 장전 시켜.  
박동원 (무전기에) 전차, 전원 장전!

기이잉- 움직이는 전차의 포신이 경복궁 30경비단을 정조준 한다.  
그걸 본 작전실 내 반란군 장군들이 욕지거리를 내뿜는다.  
전두환이 없으니 노태우만 쳐다보고, 별걸개 상기된 채 모니터를 노려보는 노태우.

장태완 신호 즉시 포격한다. 야포단도 준비시켜.  
박동원 (무전기에) 야포단 장전 대기!

효창동. 155미리 포신들이 위이잉- 경복궁 30경비단을 정 조준한다.  
그런데 수경사 병력들 주위로 수송 트럭들이 도착한다. 1공수의 차량들이 도착한 것이다.  
트럭에서 쏟아져 내리는 공수부대 병력들이 일산분란하게 전투 대형을 갖추며 이쪽을 겨냥한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걸 보는 수경사 젊은 병사들인데,  
일순간 대낮처럼 주위가 환하게 밝아진다! 1공수가 이쪽으로 서치라이트를 켜 것이다.  
이 때, 딸각- 무전기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마이크를 잡는데,

노재현 아... 아... 장 장군! 나 국방장관이야! 왜 일을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만 하세요!  
장태완 (당황) 장관님이... 왜 거기 계십니까?  
노재현 말로 해 이 사람아! 왜 서로 피를 보려고 해?!  
내 전 장군이랑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만 부대 철수하고 복귀하세요.  
장태완 그럴 수 없습니다...  
노재현 이보세요! 명령입니다. 복귀하세요!  
장태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전두환 들었지? 우린 장관님이랑 합법적으로 명령을 수행 중이야! 누가 반란군이야?!  
장태완 전두환이... 오늘 일은 역사가 평가해 줄 거다...  
전두환 그래? 그럼 씹! 씹보라고! 씨발... 이판사판이야!  
서울 불바다로 만들면 복귀 놈들 짹 다 내려오고! 우리 다 끝장나는 거야! 쓰라고!

##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장태완 .....

명령을 기다리는 시선으로 장태완을 보는 박동원.

박동원 장군님. 명령 주십시오.

장태완 .....(이를 악 물고 결심을 하려는 안간힘)

박동원 장군님. 전원 대기 중입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박동원의 옆에 앉은 운전병이 장태완의 시선에 들어온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운전병...

환한 빛 속에서 어린 장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는 장태완.

총구를 겨누고 있지만 겁에 질려 와들와들 떨고 있는 옛된 병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고...

반란군 병력 뒤편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나와서 구경하는 시민들... 장태완의 눈빛이 처연하다.

박동원 장군님! 이대로 물려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을 봐야 합니다!

장태완 여기 까지다...

박동원 !!!

장태완 고생 많았다.

박동원 장군님...

문을 열고 지프를 나서는 장태완. 병사들이 모두 장태완을 쳐다보는데,

그런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는 얼굴에 왠지 미소가 비치는 장태완이다.

그런데 저격수의 시점이 그런 장태완을 겨누고 있다!

천천히 걸어가는 장태완에게 십자선을 겨누는 저격수.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누군가 장태완의 앞을 막아서며 가린다. 뒤편에 온 박동원이다.

박동원 장군님...

권총을 꺼내는 장태완. 박동원에게 자신의 총을 건넨다. 장태완의 의지가 확고함을 알게 되는 박동원.

그 모습을 확인하는 사격사수가 급히 무전을 치고,

(저격사수) 사격중지! 사격중지!

장태완이 자신의 옆에 우뚝 선 이순신 장군 동상을 힐끔 보고는 박대령의 손에 권총을 톡 쥐어준다.

장태완 부족한 지휘관 모시느라 고생 많았다.

박동원 .....(총을 받는)

박동원을 지나쳐 쏟아지는 환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장태완. 1공수 진영 가운데로 걷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박동원과 수경사 대원들. 몇몇 병사들은 울고 있다.

장태완에게 헌병 체포조들이 총을 겨누며 접근한다.

인솔자는 장태완의 명령으로 총장공관으로 출동했던, 수경사 헌병 부감 신윤희 중령이다.

신윤희            사령관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장태완           신중령. 이게 자네의 결정인가?  
신윤희           .....

장태완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신윤희.

신윤희           모시고 가.

헌병이 수갑을 채운다. 수갑이 채워진 장태완은 헌병에 의해 인도되고, 신윤희가 뒤를 따르고,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1공수 사이를 지나는 장태완이다. 차량에 덩덤히 오르는 장태완을 바라보는 눈동자들, 멀리 세종문화회관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경사 헌병감 조흥이 무전을 친다.

**132. 전두환의 지프, 경복궁 30경비단 입구, 30경비단 작전실, 2층 화장실 교차**  
30경비단 작전실과 전두환의 지프로 무전이 전달된다.

(조흥)           장태완 사령관이 항복했습니다... 지금 체포되어 차량으로 이송됩니다.

- 전두환의 지프. 주먹을 불끈 쥐는 허화평. 환희에 차서 전두환을 보는데,  
차에서 뛰어내린 전두환이 갑자기 멈춰선 전차(M48A3K) 위로 올라가 망원경을 달라고 한다.

- 작전실 안.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반란군 장군들.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저앉기도 하고,  
그저 물끄러미 굳은 표정으로 서 있기도 하다. 한쪽에 앉은 국방장관 노재현. 지친 기색이고,  
노태우는 말없이 커피 잔에 든 양주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환호는 없다. 끝장까지 가지 않았다는 안도와 저마다의 죄책감, 알 수 없는 자괴감...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 30경비단 입구, 전차 위에 올라선 전두환의 망원경 시점.  
1공수에 의해 진압되고 있는 수경사 병력을 지켜보는 전두환의 표정이 묘하다. 승리의 기쁨인지, 안도인지,  
장태완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불쾌한 건지 모를,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이다.

- 30경비단 2층 복도, 반란 장군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다.  
복도로 들어서는 전두환에게 환호성을 하는 반란 장군들. 노태우가 맨 먼저 악수를 청하는데,

노태우           전 장군. 고생했다이.

무시하고 행하니 지나쳐 가버리는 전두환이다.

노태우           어디 가노?  
전두환           (쳐다보지 않고) 화장실. 물 버리러.

- 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서는 전두환.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서자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한다.  
벽을 짚고 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전두환. 자신도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  
아직도 열게 떨리는 손을 바라보다 주먹을 불끈 쥐어 본다.  
담욕스러운 표정에 승리의 기쁨이 희번덕거리고, 그의 표정을 한동안 보여주는 화면에서,

#### 133. 이동 중인 차량 내부, 신세계와 잠수교, 서빙고 방면

현병들 사이에 끼여 앉은 장태완이 무척이나 지쳐 보인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신세계 백화점과 분수대.  
불 꺼진 트리와 전구들이 을씨년스럽다.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장태완.. 숨을 다시 몰아쉬고 고개를 든다.  
어둠 너머로 잠수교가 멀리 보이고.. 서빙고로 꺾어지는 호송차량!  
밤새 꺼칠해진 장태완의 무표정한 얼굴을 한동안 보여주는 화면에서,

#### 134. 몽타주, 다음 날

- 새벽이 밝아오는 서울의 부감으로 디졸브 되는 화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고요한 서울의 전경이 아련하다.

- 통제된 한강다리. 바리게이트를 치우는 군인들의 모습.

- 수갑을 찬 채 호송차량으로 이송 중인 박동원과 수경사 참모들.

- 국방부와 육본 앞. 장갑차를 철수시키는 1공수 병력들의 모습.

- 국무총리 공관의 전경. 일출이 시작되는 하늘 아래, 건물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창이 보인다.

#### 135. 삼청동 국무총리 집무실 / 새벽

군복 차림의 장군들이 도열해 집무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전두환을 비롯한 반란 장군들이다.  
책상에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시선을 창 너머로 돌리고 있는 최규하.  
그 앞에 선 노재현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펼친다. 정승화 총장 체포 동의서이다.

최규하            그래... 어디 있었어요?  
노재현            ...사인부터 해 주시죠.

자신을 지켜보는 전두환과 장군들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는 최규하. 천천히 펜을 들어 사인을 해준다.  
사인을 마치자 바로 가져가는 노재현인데, 탁! 서류철을 잡는 최규하.  
모두의 시선이 사납게 변하는데, 최규하가 펜을 들어 사인 옆에 추가로 뭔가를 기입한다.  
'1979. 12. 13. 04: 30'

최규하            사후 승인입니다.

그런 최규하를 노려보는 전두환과 그 옆에 위압적으로 선 장군들.  
시선을 다시 창 너머로 돌리며 외면하는 최규하의 눈을 감아버린다.  
페이드아웃.

### 136. 종로 보안사 반란군의 연회장과 진압군 상황 교차 / 낮

- 화면이 다시 열리면, 연회가 진행 중이다. 쿠데타를 성공시킨 신군부의 축하모임이다. 황영시, 제일 신나서 전두환을 추켜세우고 있다. 전두환의 어깨를 다독이며 수고했다고 하는 차규현. 한 발짝 떨어져서 전두환의 뒤에서 웃고 있는 노태우. 반란군들의 모습이 한 샷에 담기는데, 연회장의 거의 모든 장군들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어울려 담소를 나누고 있다. 들뜬 분위기, 웅장한 군복을 입은 자들의 모습과는 이질적인 파티의 모습이다.
- 그들의 모습과는 대비적으로, 식판을 내려놓고 나가는 헌병. 화면 이동하면, 봉대를 두른 정병주가 국군병원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있다.
- 서빙고 분실 입구. 차단기가 열리며, 차량이 진입한다. 터널 같은 어두운 입구를 따라 들어선 차량에서 수갑을 찬 사내가 내린다. 김진기 헌병감이 보안사 요원들에 떠밀려 들어간다.
- 서빙고 취조실. 초췌한 물골의 정승화가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 그의 앞에서 고문을 시작하려고 옷을 벗는 젊은 수사관들이 보인다.
- 국무총리 공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있는 최규하의 처량한 표정.

### 137. 종로 보안사 건물 앞마당 / 낮

식사를 마치고 기분 좋은 얼굴로 나오는 반란군들. 추운 날씨지만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맑다. 사진촬영을 위해 정원에 펼쳐져 있는 의사들. 다들 가서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각자의 자리를 잡아 선다. 반란군, 한 명 한 명 보일 때마다 빠르게 지나가는 자막들.

허화평  
육군 준장 예편,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  
14대, 15대 국회의원

허삼수  
육군 준장 예편,  
대통령 비서실 사정수석 비서관,  
14대 국회의원

이학봉

<외부유출 절대금지> Ver.01\_210824

육군 준장 예편,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안기부 제2차장,  
13대 국회의원

장세동  
육군 준장 예편,  
대통령 경호실장,  
안기부장

김진영  
육군 대장 예편,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제29대 육군참모총장

유학성  
육군 대장 예편,  
3군사령관, 안기부장,  
12대, 13대 국회의원

차규현  
육군 대장 예편,  
육군사관학교장, 육군참모차장,  
2군사령관, 교통부 장관

황영시  
육군 대장 예편,  
육군참모차장, 3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11대, 12대 감사원장

박희도  
육군 대장 예편,  
제26보병사단장, 특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3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최세창  
육군 대장 예편,  
수경사령관, 제1군단장, 육군참모차장, 3군 사령관,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마지막으로 전두환 곁에 노태우 자리 잡는다.

노태우  
육군 대장 예편,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대한민국 제 13대 대통령

모두 카메라를 본다. 마지막 전두환의 얼굴에서, 자막.

‘이듬해 5월, 전두환은 광주로 공수부대 투입을 명령한다.’

클로즈업된 전두환 얼굴에서, 5.18 광주의 자료 화면들이 펼쳐진다. 전두환을 막지 못한 대가가  
광주 학살로 이어짐을 보여주듯, 민간인을 때리고 학살한 공수부대의 실제 자료 사진들...

‘찬란했던 서울의 봄은 그렇게 끝이 난다...’

대통령 취임식. 빛나는 대머리가 세련된 양복 차림으로 미소가 입에 걸린 채 애국가를 부른다.  
귀빈석에서 쿠데타 동료들이 당당하게 애국가 제창하는 모습 위로 한 줄.. 한 줄 박히는 자막,

‘그해 9월, 전두환은 스스로 대한민국 11대 대통령이 되었고,  
다음 해 헌법을 개정한 뒤 12대 대통령도 연임하였다.’

### 138. 서빙고 보안사 취조실

<자막 : 1980년 2월, 설날 아침 > 창밖에 창살 너머로 눈이 펄펄 내린다. 최악~! 찬물을 뒤집어쓴 장태완이  
정신을 차리는데 얼굴이 엉망진창이다. 갇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태완의 눈빛만은 오히려 더 형형하다.  
그때 이학봉의 안내를 받아 군복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허화평과 허삼수가 거만하게 쳐다보자 장태완도 고개를  
천천히 드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한 눈동자. 문이 열린 복도에서 장세동과 김진영, 조홍도 안을 들여다보고,  
하나회 차기 실세들과 마주 선 팽팽한 긴장감!

장태완 이 자식들은..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디서 이걸 고문이라고 배웠냐?  
이런 덜 떨어진 놈들 같으니..

허화평 (발끈) 아직도 혼쭐이 덜 나셨습시다~

장태완 (끄덕끄덕) 그래 더 해봐.  
(가슴을 따악 펴면서) 대신에, 그 옷 벗고 와..  
대한민국 군복은 더럽히지 마라.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는 장태완, 회환과 울분을 꼭 누르고, 끝까지 담대 하자는 각오와 눈빛,  
그 성난 얼굴에서 서서히 Fade Out..... 엔딩 테마곡과 함께 크레딧이 올라간다.